

「개벽」창간 90주년 및  
청오 차상찬 선생 문화훈장 수상기념  
학술강연회



2010. 12. 19 (일) 오후 2시-5시

천도교 중앙대교당

주최 천도교중앙총부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잡지협회 · (주)신인간사



###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 Tel 02-732-3956 | Fax 02-739-4533 | [www.chondogyo.or.kr](http://www.chondogyo.or.kr)

### 「개벽」 창간 90주년 및 청오 차상찬 선생 문화훈장 수상기념 학술강연회

일시 2010년 12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천도교 중앙대교당 | 주최 천도교중앙총부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잡지협회 · (주)신인간사

「개벽」 창간 90주년 및  
청오 차상찬 선생 문화훈장수상 기념

## 학 술 강 연 회

일시 : 포덕151년(2010. 12. 19.)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주최 :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잡지협회, (주)신인간사



## 학술강연회 순서

사회 : 정정숙(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장)

### ●개회식 (14 : 00 - 14 : 20)

- 인사말 : 천도교 임운길 교령
- 축 사 : 잡지협회 회장 전용진

### ●학술강연회(14 : 20 - )

제 1 강연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과 근대잡지  
발표 : 한기형(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

제 2 강연 조선문화론의 기수 「개벽」  
발표 : 성주현(부천대 교수)

제 3 강연 잡지 언론의 선구자 청오 차상찬론  
발표 : 신현득(문학박사)

\*유족인사 : 차웅렬





개벽사가 있던 대신사 출세 100주년 기념관



개벽사 편집실 앞에서(천도교당 앞)

앞줄 오른쪽부터 첫 번째가 박영희, 두 번째가 방정환, 네 번째가 차상찬  
 뒷줄 왼쪽부터 첫 번째가 신영철, 두 번째가 이정호, 세 번째가 박달성



「개벽」지 강제폐간

개벽지가 포덕 67년 8월 1일 통권 72호로 강제 폐간되자  
 폐간을 통보받은 직후 개벽사 직원들이 모여  
 “革命鬪爭 開闢 六七年 八月壹日 午後 四時 還元”이라 써 붙이고  
 울분을 되새기고 있다. 왼쪽에서 앞줄 다섯번째가 소파방정환,  
 뒷줄 두번째가 춘파 박달성, 세번째가 청오 차상찬.



1920년대에 개벽사에서 사용하던 원고지



1920년대에 개벽사에서 사용하던 봉투





## 개벽 開開 | 월간잡지

1920년 6월 25일 창간되어 1926년 8월 1일 통권 7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되었다. 사장 최종정, 발행인 이두성, 편집인은 이돈화였다. '개벽'이란 명칭은 천도교의 '후천개벽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판 160쪽 안팎의 국한문혼용체로 씌어졌으며, 집필자로는 주로 당시 계급주의 경향문학을 내세운 신경향파 작가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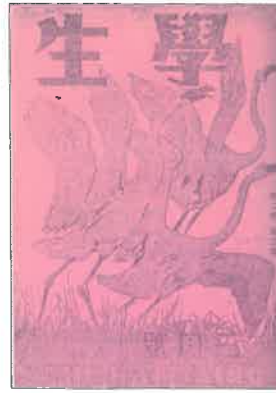
## 별건곤 別乾坤 | 월간 문학잡지

1926년 11월 1일 창간, 1934년 3월 1일 통권 101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1920년부터 발행되었던 『개벽』의 뒤를 이어 '개벽사'에서 펴냈다. 창간 때는 국판 150쪽이었으나 1931년 3월호부터 4·6배판 30쪽 안팎으로 지면이 줄었다. '취미잡지'라고 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결코 단순한 취미잡지만은 아니었다. 주요집필자는 차상찬·박달성·이서구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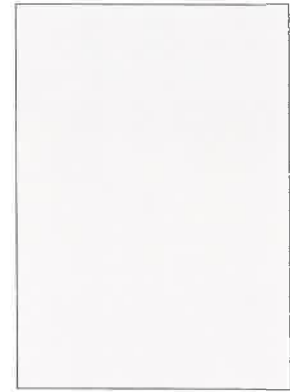
## 어린이 | 월간 어린이잡지

1923년 3월 1일 창간되었다. 초대 편집인은 방정환이었고, 그 뒤 김옥빈, 이정호, 박달성, 손진태, 윤석중 등이 맡았다. 창간호만 일본 동경에 있는 '천도교소년회'에서 펴냈고, 제2호부터는 '개벽사'에서 펴냈다. 『개벽』, 『신여성』과 함께 '개벽사'에서 발행하는 3대 잡지 가운데 하나였다. 주요집필자는 고한승, 마해송, 정인섭, 윤극영, 이원수 등이었다.



### 학생 學生 | 월간 학생잡지

1929년 3월 1일 창간되어 1930년 11월 통권18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어린이』의 독자가 성장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잡지로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방정환, 인쇄인은 전준서이다. 이태준과 최신복이 편집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창간후기를 보면 편집회의를 하니 쓸 수 있는 게 없어 쓰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일제치하에서 잡지발행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여성 新女性 | 월간 여성잡지

1923년 9월 1일 창간되었고 개벽사에서 펴냈다. 초대 편집 겸 발행인은 박달성, 제3호부터는 방정환이 맡았다가 그가 죽자 1931년 7월호부터 차상찬이 맡아보았다. 국판 100쪽 안팎으로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주요섭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여성들을 위한 일반교양이나 계몽을 촉구하는 문학작품을 실었고 아동문학에도 관심을 보여 동요나 동화를 실었다.



### 혜성 彗星 | 월간 종합지

1931년 3월 1일 창간되었다. 편집인 겸 발행인 차상찬, 인쇄인 이학중. 월간. 국판으로 창간호는 156면. 값 30전. 『개벽』지에 비해 내용이 온건하였는데도 조선총독부에 의해 원고가 불허가 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1932년 제2권 제4호를 끝으로 『혜성』지는 자취를 감추고, 1932년 5월부터 『제일선(第一線)』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 제1선 第1線 | 월간 종합잡지

1932년 5월 20일 창간되어 1933년 3월 15일 통권 11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해성彗星』의 후신으로서 편집 겸 발행인은 차상찬이었다. 창간호에 “대중과 한가지로 제1선에 나서서 그 여론을 위하여, 문화의 계몽과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침체된 문예의 진흥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했으나, 일제의 검열이 심하여 많은 원고가 삭제된 채 실리게 되었다.



### 조선농민 朝鮮農民 | 월간 종합잡지

1925년 12월 13일 창간되어 1930년 1월 1일 통권 38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창간호부터 1926년 5월호까지 이돈화가 맡았고, 그 뒤 이성환으로 바뀌었다. 1920년대에 조선 농민에 대한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자 1925년 10월 천도교청년당이 중심이 되어 조선농민사를 조직하고, 농촌계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잡지를 창간했다.



### 농민 農民 | 월간 교양지

1930년 5월에 창간되어 1933년 12월 통권 42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조선농민』의 후신으로 편집 겸 발행인은 박사직이다.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청년당’ 뿐만 아니라 홍명희, 안재홍, 김준연 등 사회주의운동가와 농민 등이 모인 순수농민운동 단체로 시작되었는데, 천도교청년당과 비청년당측의 대립으로 비청년당측이 갈라져 나간 후 남아 있던 청년당측에서 이 잡지를 펴냈다.



청오 靑嶽  
차상찬 車相讚

1887~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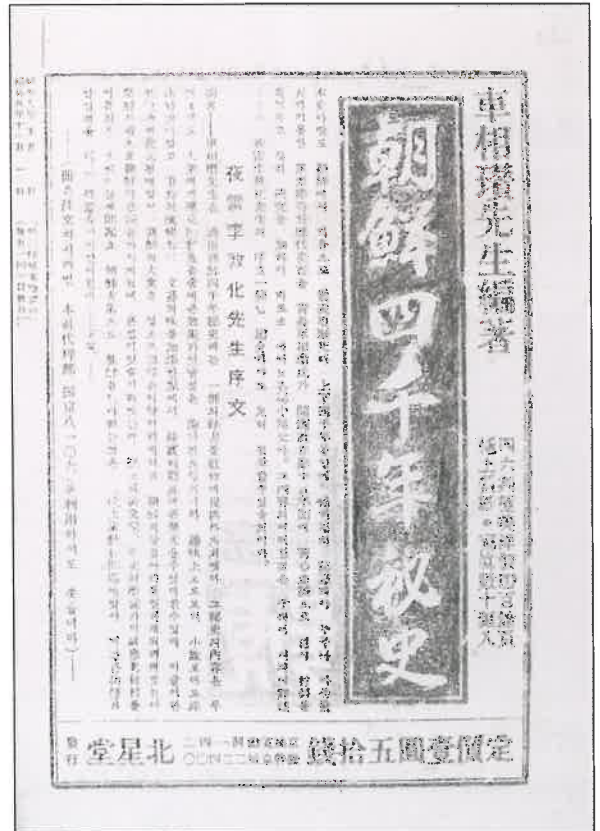
시인 · 사학자 · 언론인

개벽사 주간을 지내면서  
「개벽」, 「별건곤(別乾坤)」, 「신여성」, 「농민」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저서에 「조선사천년비사」, 「해동염사」, 「조선사외사」,  
「한국야담사화집」, 「조선백화집」 등이 있다.



조선 사천년비사



조선 사천년비사 출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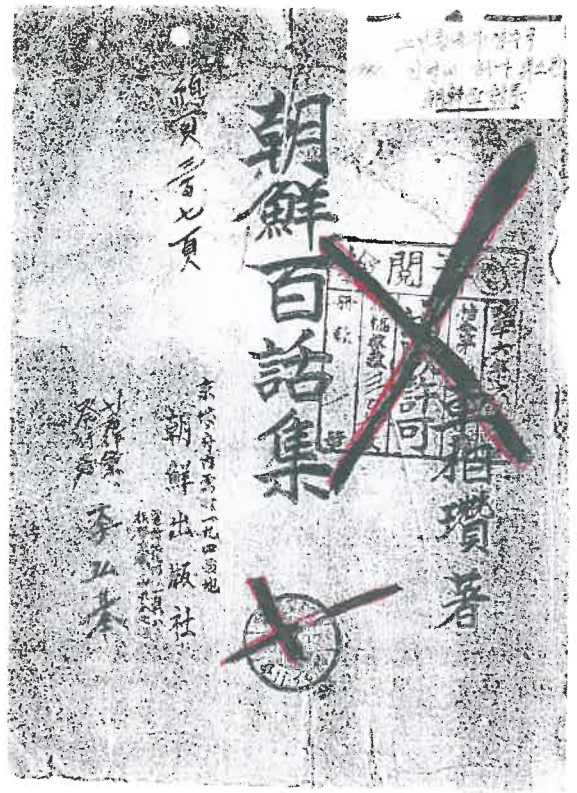
해동염사



조선사외사



한국아담사화집



조선백화집

漢詩

慶州懷古

鶴散鷄飛事已休  
山河不盡英雄恨  
千里金城依舊在  
前車未得後車戒

南漢山城

一片孤城萬古羞  
可憐上將無長劍

青吾車相發

東都王氣冷如秋  
天地猶餘故國羞  
夕陽玉笛至今愁  
幾處樓臺成古邱

男兒到此淚堪流  
未斬當年老虜頭

漢詩 (1920.6.25)

漢詩

慶州懷古

青吾車相發

일제의 검열에 의해 삭제된 원고

張禧嬪 車廬 相齋 瑣錄

長小 篤說



作者自傳

四月二十八日夕刊三編(運載)



介紹自傳

작가의 말 | 장편소설 「장희빈」 집필 (1936년 조선중앙일보)

車相贊氏

朝鮮系 城慶盧氏

大道啟青手書

송년사 학생에게 보낸 엽서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소파 방정환이 차상찬에게 보낸 엽서

#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과 근대잡지

-1920년대 『개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 형(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목차>

1. 논의의 시각
2. 지식과 국가의 분열
3.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과 잡지
4. 『개벽』의 매체전략과 '식민지 민간학'
5. 맺는말

심히 모순되는 말이나 조선서는 정치가 쇠퇴하면서 문화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요컨대 정치적 방향이 杜塞됨에 따라 문화를 정치적 정열의 방수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당연히 강한 공리성으로 일관됨은 또한 당연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의 신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점은 지극히 중요한 점이다. (임화,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11. 3)

## 1. 논의의 시각

이 글의 문제의식은 식민지 한국에서 근대 매체, 특히 잡지의 사회적 역할을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려는 것에 있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민국가의 형성이 가능했던 일본의 경우 메이지 중기 이후 『國民之友』 『太陽』 『中央公論』 등 종합잡지,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잡지가 활발하게 간행되면서 근대적 국민지식과 국민교양의 보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들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근대 문화제도의 한 형태였지만 국가 차원의 지식체계 개편과 이를 통해 양성된 새로운 지식층의 존재와 깊이 연계되어 있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에 영향을 주며 다이쇼 테모크라시를 선도했던 와세다대학 정치학 교수 우키타 카즈타미(浮田和民)가 당대의 대잡지 『太陽』 편집주간으로 취임한 것은 근대국가의 국가운영체계와 연계된 아카데미즘과 근대 종합잡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잘 드러낸다.<sup>1)</sup>

일본과는 그 맥락과 구체적 정황이 전혀 다르지만, 중국의 근대 잡지계도 아카데미즘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 중국 신문화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근대 지식문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陳獨秀, 胡適, 錢玄同, 劉半農, 沈尹默, 魯迅 등 『신청년』의 주역들은 북경대학의 교수이거나 강사였다.<sup>2)</sup> 『신청년』은 근대대학의 지식계층과 결합함으로써 근대지식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대학 아카데미즘의 진보적 역량의 표상체제로 잡지라는 매체형식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傅斯年 등 북경대학 학생들에 의해 간행된 『新潮』는 북경대학판 『신청년』으로 불렸다. 『신조』는 당시 젊은이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남부중국에까지 유통되었다.<sup>3)</sup> 『신청년』에서 『신조』로 이어지는 대중적 학술·문화 잡지의 사상적 영향력은 대학의 태내에서 그 성장의 계기를 얻었던 것이다.<sup>4)</sup>

그러나 한국의 근대매체들은 식민지라는 정치 환경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지식 근대화정책 혹은 아카데미즘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식민지 잡지의 고유한 사회적 맥락을 만들어냈다.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아카데미즘과의 단절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조선어 잡지들이 한국적 근대지식의 창출 주체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식민지 사회에서 근대적 지식체계가 이원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책학으로서의 관학적 지식과 식민지인이 스스로 만들고 유통시킨 민간학적 지식의 암묵적 경쟁과 대립은 1920년대에 들어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뚜렷한 그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sup>5)</sup>

이러한 지식제도의 분열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사회체제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

- 
- 1) 大和田茂, 「編輯主幹・浮田和民の位置」, 『雜誌「太陽」と國民文化の形成』, 思文閣出版, 2001.
  - 2) 김영구, 『신문화운동에 있어서 『신청년』의 역할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4장 참조.
  - 3) 백영서, 『중국현대대학문화연구』, 일조각, 1994, 222면.
  - 4) 『新青年』의 성격과 그 사상적 특질에 대해서는 野村浩一의 『近代中國の思想世界-『新青年』の群像』(岩波書店, 1990)을 참조할 것.
  - 5) ‘관학’과 ‘민간학’을 학술적인 용어로 개념화한 사람은 일본 연구자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이다. 그는 『近代日本の民間學』, 岩波書店, 1983/ 『근대일본의 학문』 서정완 역, 소화, 2008)에서 일본 근대학술사를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주의에 봉사하는 관학 아카데미즘과 인간적 가치와 학문적 다원성을 추구하는 민간학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필자는 가노의 입장과 개념설정 등에 동의하며 그 용어를 이 논문의 핵심개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에서 관학과 민간학의 성격은 일본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었다. 식민지에서의 관학은 식민지 지배 정책학을 의미했다. 그것은 제국의 관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반면 식민지의 민간학은 주권국가의 관학아카데미즘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대국가 운영체계로서의 학문적 내용과 역할을 ‘상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상실된 국가와 주권의 회복 가능성을 환기하는 정치성의 지속이야말로 식민지 민간학이 추구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관학과 민간학의 관계에서 제국 내부와 식민지의 본질적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민간학이 관학의 구심력을 해체하고 원심력화 했다면, 후자는 민간학이 스스로를 새로운 구심력으로 중심화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었다. ‘지배하는 국가’와 ‘상상되는 국가’의 중첩은 식민지인의 인식체계를 규정한 본질적 조건이었다. 그 중첩성은 식민지인 문화구조와 인식체계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양자가 통합할 수도 공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식민지에서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냈다. 제국의 입장에서 ‘상상되는 국가’의 존재는 그것이 아무리 잠재적인 것일지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국의 국체를 부인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배하는 국가’가 ‘상상되는 국가’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 그러한 긴장이 식민지 매체로 하여금 식민지인의 독자적 지식/학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만들어냈다.

그 때문에 1920년대 통용된 ‘新聞政府論’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조선인 매체들은 조선사회를 ‘共治’하는 또 하나의 주역으로 자기를 정의했다. 이것은 조선인 매체가 처한 역사적 특수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헤게모니의 한 양태였다.<sup>6)</sup> 그것은 조선어를 통해 지적 텍스트를 생산한 주체라는 식민지 매체의 자의식에 의해 생겨난 것이었다. ‘공치’ 감각의 내부에는 식민지 매체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이 제국의 관학이 제공하는 學知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신문과 잡지에 광범하게 드러나는 공통의 자질이다.

식민지 민간학과 매체의 밀접한 관계는 1920년대 최대의 잡지였던 『開闢』(1920.6-1926.8, 통권 72호)을 통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개벽』은 국민지식의 창출과 보급이라는 근대 종합잡지의 일반적 성격에 충실했지만, 그 속에 반식민성과 자립적 근대화의 의도를 강하여 내장하여 식민권력과 지속적으로 대립했다. 제국의 국민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국민화’하려는 『개벽』의 노력은 총독부에 의한 강제폐간으로 종결되었지만, 『개벽』의 사례는 식민지인의 지식문화가 제국의 그것과 구별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조건의 소산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sup>7)</sup>

## 2. 지식과 국가의 분열

한국에서 잡지는 ‘근대지식의 국가화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출현했다. 최초의 국문잡지로 평가되는 『親睦會會報』(1896.2 창간)는 초기 일본유학생들에 의해 결성된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의 기관지였다.<sup>8)</sup> 학부대신 朴定陽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유학생들이 조선정부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신진

6) 박헌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대동문화연구』 50, 2005

7) 『개벽』의 전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최수일의 『개벽연구』(소명출판, 2008)를 참고할 것.

8)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I), 서울대출판부, 2000, 221면.

엘리트가 되기를 기대하는 훈시를 했다.<sup>9)</sup> 박정양의 훈시에 대해 유학생들은 ‘卒業한 후라도 官에 隸하와 國恩의 萬分之一이라도 報’할 것을 약속했다.<sup>10)</sup> ‘졸업한 후 관무에 참여해 국은을 갚겠다’는 유학생들의 응답 속에는 국가개량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각오가 담겨 있었고 그들이 만든 『친목회회보』는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 국가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김홍집 내각의 국가근대화 프로젝트에 호응했다.<sup>11)</sup>

지식을 통한 국가의 근대적 재편이라는 『친목회회보』의 매체 특질은 1905년이 넘어서면서 한국잡지의 표준양식으로 보편화되었다. 민간의 계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치결사체가 ‘학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과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다투어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잡지들은 정치운동의 선전활동보다는 조선의 근대적 재구성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계몽단체의 잡지들이 정치투쟁보다 근대지식의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실력양성론에 기울어졌던 구한말 계몽운동단체의 개량적 성격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근대적 재편과 그 보편화를 수행할 사회적 주체의 부재라는 현상도 잡지의 그러한 성격을 구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 대한제국이 수행한 지식근대화정책의 성과는 미미했다. 국가의 교육제도는 정비되지 못했고 학부 주관의 서적편찬 사업도 부진했다.<sup>12)</sup> 이 공백을 대신한 것이 민간의 매체와 출판사들이었다.

근대국가의 성격과 그 구성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근대 초기의 조선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그 정치적 주장을 담아낼 지적 체계의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3)</sup> 『기호홍학회월보』의 필자 이종호는 ‘학회지’의 성격을 “신선한 학문으로 지식을 개발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知得케 함”<sup>14)</sup>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정의 속에는 근대 초기 잡지의 사회적 성격이 잘 농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잡지의 국가지향성은 한국의 근대 지식문화가 당초부터 민간, 혹은 주변에서 중심 혹은 상층부로 나아가는 상향적 체계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9) 박찬승, 「1890년대 후반 독일 유학생의 현실인식」, 『역사와 현실』 31, 130면.

10) 『친목회회보』, 창간호, 1896.2, 15-17면.

11) 차배근, 앞의 책, 제6장, 「내용분석을 통해 본 『친목회회보』의 목적과 성격」.

12) 김봉희, 『한국개화기 서적문화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99, 108-114면.

13) 근대 초기 학회의 사상 지향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김도형의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지식산업사, 1994) 2장 「문명개화론자들의 문화계몽운동과 사상」을 참고할 것.

14) 李鍾浩, 「각 학회의 필요 급 본 회의 특별 책임」, 『기호홍학회월보』 1호, 1908.8, 20-22면.

준다. 그것은 제국의 지식문화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하향식 체계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제국의 지식문화가 위로부터의 국민화라는 현상과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라면 한국의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국민화라는 사회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는 근대국가의 자율적 수립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그러한 특질을 장기적인 현상으로 고착시켰다.

한국의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사회 내부에서 유통되는 근대지식은 그 성격의 변화를 심각하게 강요받았다. 핵심적인 특징은 국가의 대한 관심의 약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검열법인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의 반포로 한국인의 자립적 근대화에 관련된 문헌의 간행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통감부의 검열정책에 대해 “국가를 망하게 하는 政事와 종족을 멸하게 하는 사육을 은폐함이 없이 천하에 발표하는 것이 치안을 방해하고 풍속을 괴란하는 것인가?”라는<sup>15)</sup>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미 그러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1909년 흥행선동, 국교저의, 질서문란, 국권회복 등 네 가지 검열원칙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제국 일본의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1909년 5월 경시청은 전국의 서점에서 『東國史略』 『幼年必讀』 『이십세기조선론』 『월남망국사』 『금수회의록』 등을 압수했다. 이 때 출판법에 의해 압수된 책자의 수는 3,800여권을 상회했다. 다수의 교과용 도서가 사용금지 되었고, 출판법에 의해 압수된 책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각 학교에 하달되었다.<sup>16)</sup> 1910년에도 『미국독립사』, 『이태리독립사』, 『화성돈전』, 『서사건국지』, 『애국부인전』, 『국가학강령』, 『국민자유진보론』, 『이십세기지대참극제국주의』, 『국가사상학』, 『국정신담』, 『민족경쟁론』, 『國民須知』, 『독립정신정치원론』 등 많은 수의 서적이 발매금지되었다. 한일합방에 임박해 압수되거나 발매금지된 서적의 대부분은 근대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한 서적들이었다.<sup>17)</sup>

1909년 학부가 발표한 ‘교과서 검정조사’의 내용 가운데는 ‘과격한 문자를 쓰고 독립을 말하여 나라의 시세형편을 파괴하려하는 정서를 鼓動하는 자’, ‘국가의 의론과 의무를 게재하여 불온한 언사를 쓰는 자’, ‘편협한 애국심을 말하는 자’, ‘은연중에 일본과 다른 외국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고동하는 자’, ‘외국배척하는 사상을 고동하는 자’ 등의 항목이 들어 있었다.<sup>18)</sup> 그것은 조선사회에서 지식과 국가의 인위적 단절과 식민지 지식체계로의 재구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15) 정근식, 「식민지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2003, 23면.

16) 『황성신문』 1909.5.7, 25, 29

17) 하동호, 『근대서지교습집』, 탑출판사 1986, 8-10면.

18) 『대한매일신보』 1909.3.14

한국의 식민지화가 완성된 1910년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합방 직후 발표된 ‘조선교육령’은 고등학교의 명칭을 고등보통학교로 바꾸면서 실업 중심의 교육내용을 더욱 강화시켰다. 실업 중심의 중등교육기관을 식민지 교육의 완성태로 상정하고 대학에 대한 규정은 설치하지 않았다.<sup>19)</sup> 이것은 식민지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즘의 창출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일본과 조선의 위계적 분담체계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의 설치한 고등교육기관도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법관양성소, 의학교, 실업학교 등 전문학교 수준의 열악한 것이었지만<sup>20)</sup> 조선의 식민지화는 그 개선 가능성 자체를 봉쇄했다. 근대지식의 형성과 유통에 미친 초기 근대매체의 과도한 역할은 대한제국 고등교육제도의 부실과 근대 아카데미즘 미성장이란 시대환경과 밀접히 관련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식민지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독립적인 교육·학술의 존립은 한국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근대지식창출 회로로서 매체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매체의 위상 변화의 특질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잡지는 최남선이 주관했던 『소년』이었다. 『소년』은 1908년 11월에 창간되어 1911년 5월 22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식민지가 막바지에 이른 시기에 간행되어 식민지가 완성된 1년 후에 중단된 이 잡지의 궤적을 살펴보면 국가성의 표현을 둘러싼 식민지 매체의 고민이 드러난다. 최남선이 사용한 ‘소년’은 1920년대 ‘청년담론’이 그러했던 것처럼<sup>21)</sup> 일정한 역사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불완전한 혹은 유아적 계몽주체를 지시하는 ‘소년’의 의미표상은 미성숙한 단계의 근대국가로 당대를 암시했다. 그것은 근대국가로의 경로는 분명해져 아직 그 주권을 행사하기에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대정황을 이해하도록 유도했다.

국가학이 금지된 시대상황 속에서 최남선은 ‘국가’ 대신 ‘국민/민족’ 개념의 확산에 주력했다. 『소년』이 창안한 ‘時文體’는 근대 국민/민족어의 실질적 효시가 되었고,<sup>22)</sup>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된 국민/민족지식이 이 잡지를 통해 선전되었다. 그러한 전술적 선택을 통해 『소년』은 조선의 식민화 과정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소년』은 국가론이 거세된 국민/민족지식의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무단통치’라는 억압적 상

19) 박철휘, 『식민지기 한국중등교육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02, 「식민지초기 고등보통학교 교육」

20) 유방란, 『한국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박사논문, 1995. 3장, 104-112면.

21) 1920년대 ‘청년담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기훈의 『일제하 청년담론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5) 참조.

22)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 역사비평사, 2005.

황에서 잡지의 합법적 간행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학을 제외한 것이 제국의 지배에 대한 최남선의 자발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전 기간을 통해 제국을 주어로 하지 않는 국가학(론)은 대부분 합법의 영역에서 문자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독부가 작성한 검열 기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기사’ 그리고 ‘국헌(國憲)을 교란코자 하는 기사’였다.<sup>23)</sup> 이것은 식민지인이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국가질서에 도전하거나 간섭하는 어떠한 문자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잡지 『소년』에서 국가학이 배제된 국민/민족지식의 표현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유예된 국가건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이데올로기적 유도체인 ‘조선학’의 구성이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남선의 『海上大韓史』와 신채호의 『國史私論』 같은 문장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강요된 부재를 지식과 관념으로 대치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근대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문화유산의 정리를 통해 증명하려는 고전부흥운동인 ‘朝鮮光文會’ 활동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소년』 중간호에 최남선은 「조선광문회에 대하여 우리 『소년』 독자 열위의 열렬한 찬성을 구함」이라는 짤막한 글을 실어 『소년』 이후의 활동이 ‘조선광문회’로 연결될 것임을 암시했다.<sup>24)</sup>

둘째는 중세지배이념의 해체와 독자적인 근대이념의 창출이었다. 『소년』의 중간호에 「王陽明先生實記」(박은식)을 게재하여 조선사회에서 左道로 규정되었던 양명학의 복권을 시도한 것은 그 출발점이었다. 중세와의 이념투쟁은 1910년대 이광수와 최남선 문필활동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는 ‘근대지식의 하나로 문학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고 문학이 지닌 심미적 정치성의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던 일이다. 프랑스 근대혁명의 결정적 장면을 다룬 번역 소설 「ABC契」(빅토르 유고 『레미제라블』의 부분 번역)가 식민지화 직전(1910.7) 『소년』에 게재된 것, 톨스토이를 ‘국가와 교회에 반항하는 정신적 무정부주의자’로, 그의 소설 『부활』을 ‘19세기의 양심의 위에 더한 일대 痛棒’이라 규정한 것 등은 문학을 국민/민족지식의 중심으로 삼으려했던 의도의 산물이었다.<sup>25)</sup>

23) 「朝鮮文刊行物行政處分例」,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總督府 警務局 圖書課, 1930

24) 조선광문회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는 오영섭의 「조선광문회연구」(『한국사학사학보』 3, 2001) 참조.

25)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형성의 제도적 연관」,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출판부, 2006, 389면,

### 3.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과 잡지

한국의 식민지화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독립적인 근대 아카데미즘을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식민체제에 포섭되지 않은 조선인의 학술활동은 일본의 제도적 학문과 분리된 '민간학'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민간학'은 식민지 관학과 일본 근대학술제도의 영역 밖에서 존립한 식민지 지식인의 자립적 학술활동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식민체제의 지식/학술정책과 결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식민지의 내부에서 독자적인 생존환경을 창출할 수 있었다.

식민지 민간학은 다양한 방면의 민족지식, 사회와 현실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사회과학, 근대인의 문화적 정체성 수립을 위한 문학·예술 등을 포괄했다. 이들 식민지 민간학은 국가의 교육·학술기구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지식 수요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민간학의 확산에 매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식민지 민간학은 근대지식의 신분화라는 식민지 관학의 사회적 성격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오로지 수요자의 지적 욕구와 이념 지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민지의 국가체제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과 의식적으로 분리된 지식의 생산과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지식 유통의 직접성이 식민지 민간학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민간학은 근대 아카데미즘의 일반적 내용과는 구별되는 지식내용과 기술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대에 조성되어 1920년대에 일반화된 근대매체와 민간학의 조우는 그러한 수평적 지식교류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았고, 매체가 구성하는 지식은 독자적 아카데미즘의 부재라는 식민지 현실의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민간학은 자립적 국민국가와 근대적 주권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관학에 대한 대항지식으로서의 정체성과 반식민지 정치의식을 내장하고 있었다. 저명한 문예비평가 임화가 1920년대 대표 잡지였던 『개벽』과 『조선지광』에 대해 “이 두 조선 문화사상 특기할 잡지가 최근 연간까지 조선의 사상계와 문화계를 좌우하고 공헌한 것은 실로 신문보다 크다”<sup>26)</sup>라고 지적했을 때 그의 의도는 이 두 잡지가 생산한 지적 언어의 정치성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학술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의 교섭, 비평정신과 전문지식의 결합, 지식인과 대중의 직접 연계라는 특질이 식민지 잡지를 통해 형성된 민간학의 주요한 특질이였다. 식민지 민간학은 식민지 내부에서 지식과 학술을 통한 국가성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26) 임화, 「잡지문화론」, 『비판』, 1938.5, 115면.

식민지 민간학과 잡지의 관계는 3.1운동 이후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맞았다. 조선어 매체의 간행이 제한적이거나 허용되면서 다수의 잡지들이 발행되기 시작했다.<sup>27)</sup> 특히 중요한 변화는 제한적이거나 식민지의 정치현실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된 ‘신문지법’에 근거한 잡지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개벽』, 『신생활』, 『신천지』, 『조선지광』, 『東明』, 『현대평론』 등이 그러한 잡지들이었다. 물론 그 자유는 결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잡지 간행 조건의 부분적 변화가 식민지 민간학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1920년대 잡지가 보여준 식민지 민간학의 특징은 그 성격이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해졌다는 것, 지적 전문성의 수준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민/민족국가에 대한 ‘상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식민지 지식인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 잡지가 주력한 식민지 민간학은 민족학, 사회주의지식, 근대문학의 세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식민지 민족학의 선구자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安廓은 『我聲』 창간호(1921.3)에 『조선문학사』를 발표했는데, 그의 논문은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성』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연합으로 창설된 청년단체 ‘조선청년연합회’의 기관지였고 민족주의 입장을 대표했던 안확은 이 잡지의 ‘편집자이자 발행자’였다. 『아성』 창간호에는 저명한 사회주의자 金思國, 尹滋瑛, 元友觀 등의 글이 安廓의 『조선문학사』와 함께 실렸다. 한 잡지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사회에서 근대사상의 미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상의 차이보다 독자적인 근대국가에 대한 열망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차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up>28)</sup>

안확은 “문학은 가장 민활 영묘하게 심적 현상의 전부를 표명함으로 其 국민의 진정한 변천 발달을 알고자 하면 此보다 더 大한 것이 없다”<sup>29)</sup>고 말했다. 1914년 니혼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했던 안확의 이력을<sup>30)</sup>을 고려할 때, 그가 자신의 문학사 기술에서 1890년 간행된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의 『국문학』, 하가 야이치(芳賀矢一)·다치바나 센자부로(立花銑三郎)의 『국문학독본』, 미카미 산지(三上參次)·다카츠 구와사부로(高津鐵三郎)의 『일본문학사』 등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sup>31)</sup>

27)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근수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한국학연구소, 1973)을 참조할 것.

28) 한기형, 「이념의 구심화에서 ‘실용적 확장’의 증식구조로-『조선문학사』, 『신문학사』, 『한국문학통사』의 비교 검토」, 『고전문학연구』 28, 2005.

29) 안확, 『조선문학사』, 『아성』 창간호, 44면.

30) 최원식·정해립 편역, 『자산안확선생연보』, 『안자산 국학논설집』, 현대실학사, 1996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학의 저술이 일본 국문학사에 투영되어 있는 일본의 관학 이데올로기와 문제의식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안학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적 정신의 물질화인 ‘조선문학’의 독자성과 특수성의 문제였다. ‘국민의 심적 현상의 역사’로 의미가 규정되면서 문학사는 강력한 구심력을 가진 ‘근대 세계관의 기술방법’으로 그 사회적 역할이 천명되었다. 안학은 『조선문학사』를 통해 전근대 문학의 역사를 근대 국민정신의 내용으로 치환하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근대국의 부채와 이민족 침략, 그리고 국민의식의 미성숙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안학의 작업은 식민지인의 국민적 과거와 전통을 창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가 주목한 ‘역사’와 ‘전통’은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의 핵심적인 용어였다.<sup>32)</sup> 그것은 근대국가 전체에서 광범하게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식민지에서의 의미는 보다 특별했다. 안학의 저술은 ‘탈국가’와 ‘재국가화’라는 지적 모험이 식민지 민간학의 모순된 독자성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전자는 제국으로부터의 이념적 제도적 자립을, 후자는 민족이라는 관념의 대중화와 독자적인 국가건설에 대한 여망을 의미했다.

한국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을 추적한 류준필은 그 특질이 ‘인류와 세계에 조용하는 보편적 가치를 조선민족 혹은 국가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자 ‘인류와 세계의 보편문화에 조선민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 그 의의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sup>33)</sup> 식민지 민간학은 결국 그러한 보편성의 주체와 대상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 4. 「개벽」의 매체전략과 식민지 민간학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에 관여한 잡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준 「개벽」은 두 가지 지점에서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매체였다. 천도교라는 한국의 근대 신흥종교가 이 잡지의 간행주체였다는 것, 그럼에도 종교잡지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적 종합잡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었다. 자생적 신흥종교가

31) 유준필, 「일본 자국문학사 발생의 원천과 맥락」, 『한국학보』 104, 2001

32)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33)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식민지에서 근대 민간학을 후원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sup>34)</sup>

이 잡지의 주동자들은 대부분 천도교의 핵심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잡지 정책은 식민지에서 독자적인 지식의 모더니티를 창출하는데 집중되었다. 『개벽』이 민족지식, 사회주의지식, 근대문학이라는 식민지 민간학의 후원자가 됨으로써 그 간행주체인 천도교는 이들 민간학 각 영역의 사회적 배후세력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식민지 한국에서 지식과 학술의 반관학적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도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잡지가 민족지식과 사회주의, 그리고 근대문학이라는 식민지 민간학의 주류적 양식을 하나의 잡지 안에서 동시에 종합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김정인은 『개벽』의 담론 지평을 ‘문화담론’, ‘민족담론’, ‘계급담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했다.<sup>35)</sup> 이러한 담론은 곧바로 위에서 제시한 민간학의 세 범주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개벽』의 민간학은 식민지 사회에서 특별한 지적 아우라를 창출하면서 이 잡지의 영향력을 만들어 나갔다. 『개벽』의 모색은 아카데미한 근대學知의 틀과는 구별되는 식민지 대중지식의 모형을 제시했으며 식민지 관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소통의 방법을 창안했다. 『개벽』의 상업적 성공과 광범한 독자의 확보는 식민지 민간학의 주역이라는 이 잡지의 성격에 기반한 것이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개벽』이 포괄했던 민간학의 세 범주가 『개벽』이라는 매체 공간 안에서 유기적인 상호 결합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지식과 사회주의지식, 근대문학은 그 기원과 계통의 차이에 의해 상호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개벽』은 ‘종교적 인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범주를 통합하는 지적 구조력을 보여주었다.

『개벽』 창간호의 冒頭 논문 「세계를 알라」는 『개벽』의 목표가 ‘세계적 지식’의 창안에 있음을 천명했다. 이 글이 주창한 ‘세계적 지식’의 의미는 승자의 이데올로기인 사회진화론의 폐기와 상호부조론에 근거한 종교적 인민주의의 보편화를 의미했다. 『개벽』의 민간학은 이러한 ‘종교적 인민주의’를 통해 독자 대중의 사회인식을 변화시켰다.

『개벽』이 추구했던 식민지 민간학의 사회적 영향력은, 90%에 달했던 1920년대 초반의 문명물 속에서 평균 8000부 이상의 잡지를 매달 판매하며 475명의 인물들과 연계된 20개 이상의 전국적 유통망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중요

34) 한기형의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35) 김정인, 「『개벽』이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한 점이 『개벽』의 유통과 연계된 인물들의 성격인데, 신원이 확인된 170명은 대부분 지방의 사회주의 운동가이거나 식민지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인물들이었다. 『개벽』의 유통과 사회운동조직의 결합이야말로 이 잡지의 ‘문화권력’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조건이었다.<sup>36)</sup> 그것은 『개벽』의 민간학이 식민지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독자적인 국가건설을 향한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임화가 『신문학사』에서 말했던 ‘문화의 공리성’이란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국가건설과 관련된 문화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벽』 민간학의 양상은 식민지에서의 근대화가 ‘제국-식민지’ 사이에서 일어난 구심력과 원심력의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민족종교의 영향 아래 조성된 사회주의지식과 민족지식, 근대문학의 상호 유기화는 조선에서 형성된 식민지 민간학의 독자성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사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들 민간학의 개별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 잡지에 참여한 각 사회세력이 발산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들의 사회적 표상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지식이 하나의 매체 공간 속에 공존하면서, 각각의 지식이 독립적으로 발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지적 의미망을 구성하였다. 그것은 매체가 조선사회에서 이른바 ‘메타지식(meta-knowledge)’의 주체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것은 각 지식의 개별성이 보존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매체 내적 결합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맥락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흥종교와 사회주의, 민족지식과 근대문학의 유기적 연계가 만들어낸 『개벽』의 민간학이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또 그것은 이후 한국사회의 지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의 문제가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이 해명되지 않으면 식민지의 지식문화는 오직 제국의 모방과정으로, 혹은 단순히 근대적 무한연쇄의 한 양상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벽』 1925년 12월호(64권) 목차 사진<sup>37)</sup>

---

36)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267-360면.

37) 이 목차 속에는 일본 사회주의정당에 대한 소개와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대한 소감, 식민지인의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국토순례기와 한국의 지방문화 소개,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의 관점에서 씌여진 문학비평과 소설작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



所謂知識階級의 聯盟 對하야 朴春宇(春宇)

시리아族의 反抗運動 金環(環)

所謂小樽의 假想數問題 比戰 昨 今年 統計 計 朴(朴)

趣味·紀行

嶺南地方 巡回片感 林元根(元根)

兩西五十日 中에서 朴遠成(遠成)

京城은 一年 間일 마나 變했나 一記者(記者)

全北踏查記

全羅北道 縱橫觀 車相(相)

朝鮮人 教育과 日本人 教育 産業上으로 본 全羅北道 日人에게 全滅된 全北의 土地 全北의 青年 運動과 勞働 運動 이 땅의 名勝과 古蹟 全北의 列邑 概觀 湖南을 一瞥 하 고

文藝

新傾向派의 文學의 文壇의 地位 朴英熙(英熙)

屍體를 掘고 巴人(巴人)

마사르의 否定的 精神 懷月(懷月)

큰 불 천 뒤 海(海)

생물 運(運)

香(香)

5. 맺는말

이 글의 목표는 식민지 민간학의 자장 속에서 국가의 재구성 혹은 선취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것과 식민지 잡지가 그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에 있다. 식민지 민간학은 근대의 아카데미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능동적으로 식민지 사회가 필요한 지식문화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근대매체는 그러한 식민지 민간학의 중요한 서식 근거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국가에서 매체가 갖는 자율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매체는 근대국가의 표상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의 일부였다. 이 제도 속에서 국가의 이상이 선전되기도 하고 국가의 의도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은 국가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만약 그러한 국가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체가 있었다면 그것은 필시 합법적으로 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식민지의 매체는 그러한 국가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식민지 매체는 조선어라는 방언으로 기록된 '지방의 텍스트'였다. 그것은 '대일본제국'이란 근대국가와는 애초부터 무관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본다

면 조선의 매체는 제국의 국가영역에서 소통될 수 없는 원주민의 언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식민지 매체가 겪었던 국가와의 인위적 단절(그것이 식민성의 본질이였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식민지 매체의 고유성을 만들어냈다. 식민지에서 매체는 일종의 의사(擬似) 국가화 과정의 주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구현된 매체와 국가의식의 독특한 혼효(混淆), 그것은 '부정된 자율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자율적 세계의 한 현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지식인사회의 독특한 심태가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국가와 무관하면서도 자신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모순된 이중감각이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적 자질 가운데 하나로 굳어진 것이다.

한국의 근대문학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민지 지식인이 처한 특수성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잡지 『개벽』은 이 잡지의 간행 목적을 위해 문학을 철저히 활용했다. 『개벽』에서 문학은 '근대국가의 부재'를 벗어나기 위한 우회적 발언의 일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지에서 문학의 위상은 정치학, 철학 등의 여타 지식이 지닌 학적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었다.

『개벽』의 문학은 문학의 본래적 성질인 모호성과 통합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민족 지식, 사회주의 지식과 같은 반체제적 저항담론을 은닉하거나 전파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포함해 『개벽』에 게재된 다수의 작품이 상징하는 민족적 위기의 표상, KAPF(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작가들의 작품 속에 해체되어 분산된 사회주의의 흔적들은 『개벽』의 문학이 고도의 정치언어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벽』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합성은 식민지의 개인이 문학을 매개로 미적주체로서의 독자성과 집단적 주체로서의 사회성을 통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한 입장은 해방 이후 『사상계』, 『창작과 비평(Creation and Criticism)』 등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창작과 비평』은 현재에도 1920년대 『개벽』이 취한 잡지 편집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잡지가 창간된 1960년대 이래 이 잡지에서 문학과 정치, 문학과 사상, 문학과 국가는 하나의 매체 공간에서 늘 공존해왔다. 문학을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의 결과인 이러한 편집 정책은 근대적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미성숙 등에 의해 조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기부터 진행된 지식인과 국가의 관계설정 방식의 관성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창작과 비평』의 사례는 한국에서 매체의 양식 특질을 연구하는 것이 사상사와 지성사의 성격을 해명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㉔

# 조선문화론의 기수 「개벽」

성 주 현(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

## 1. 머리말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은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정책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통치의 전환은 전 민족이 참여하였던 3·1운동의 결과로 획득한 전리품이었다. 그런 점에서 1920년대의 문화운동은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1920년대 문화운동의 중심에는 『개벽』이 있었다. 그동안 『개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문학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문화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 성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개벽』의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것이 ‘조선문화론’이었다. 1920년대 조선문화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개벽』이었다.<sup>1)</sup>

『개벽』이 조선문화론을 제창하게 된 것은 1919년 9월 2일에 조직된 천도교청년회가 ‘조선문화’를 주제로 전국순회를 통해 조선의 문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천도교청년회는 강연부 사업으로 1920년 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제가 ‘조선문화’였다. 조선문화를 주제로 한 순회강연은 1921년과 1922년에도 계속되었다.<sup>2)</sup> 그렇기 때문에 『개벽』은 천도교청년회를 조선문화 건설의 중심체로 평가하였다.<sup>3)</sup> 이러한 바탕위에 『개벽』은 1923년의 사업으로 ‘조선문화의 기초조사’를 대대적

- 
- 1) 『개벽』이 조선문화론을 제기하였을 시기에 『동아일보』도 조선문화론을 제기하였다. 『동아일보』는 1920년 9월 20일자에 「조선문화 보급의 일 방법」 사설을 통해 조선문화론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문화의 보급은 한글을 장려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천도교유학생 강연회」, 『동아일보』 1921년 7월 29일; 「유초전교실 대강연」, 『동아일보』 1922년 4월 11일자. 동경불교유학생도 조선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불교 순회 강연」, 『동아일보』 1921년 7월 21일자)
  - 3) 백두산인, 「一般의 期待下에 立한 二大青年團體」, 『개벽』3, 1920.8, 61쪽 및 84쪽. “큰 일도 조선흥쇠에 영향이 미칠 것이오 적은 일도 조선성쇠에 영향이 미칠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크면 클수록 그 영향이 클 것이오, 적으면 적을수록 그 영향이 적을 것은 정한 일이라 생각 건대 이제 우리조선에는 천도교회와 가티 큰 단체가 다시 업슬 것이오, 떨어져 同會로 올라 나온 청년회와 가티 큰 會가 다시 업슬 것이다 이 점에서 同會의 발전은 조선사회의 일부 발전으로 보지 안이할 수 업고 同會의 향상은 조선사회의 일부 향상으로 보지 안이할 수 업나니 吾人은 朝鮮을 사랑하는 마음 朝鮮문화 建設을 희망하는 마음 朝鮮의 영원한 발전을

으로 전개하였다. 개벽이 전개한 ‘조선문화의 기초조사’는 각 지역별 정치, 경제, 사상, 승적, 전설, 인물 등 전반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문화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1920년대 『개벽』에서 전개하였던 조선문화론은 1930년대 민족운동의 한 분야로 자리잡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1930년대 대표적인 조선학운동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개벽』의 조선문화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화운동의 전개와 『개벽』 창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새로운 세계를 예고하였다. 자본주의 문명의 새로운 규범이자 열강들의 재편으로 인류의 자유, 평등,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신사조가 유행하였다. 신사조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침략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 약소민족의 저항, 민족의 독립된 자유와 권리 획득을 당연한 시대의 조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아래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3.1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들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은 현대문명의 신사회 건설을 주장하였다. 민족주의 세력은 신사회, 신문화를 수립하는 것이 ‘조선의 급선무’라고 하고 이를 위해 ‘문화운동’을 제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는 문화운동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돈화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신이상과 신각오가 출현된 이 세상은 후천개벽의 운이며, 이 세상의 개벽은 평화에 의해 건설되고, 평화는 과학이 아닌 종교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종교는 구래의 종교가 아닌 신종교 신신앙인 천도교”라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은 바로 ‘천도교’라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개조운동의 실천과 천도교의 사회화를 위해 설립된 천도교청년회는 문화운동을 이끌어 갔다. 천도교청년회는 문화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선의 큰 단체인 천도교회의 발전을 祝하는 동시에 천도청년회의 진보를 희망하며 그리하여 同會의 유일 활동의 신조되는 이른바 내일은 오즉 내가 할 뿐이라 一切 진리의 중심을 오즉 내게 두라 하는 자도 나요 돕는 자도 나요 이루는 자도 나니라 云한 활동의 신조가 널리 우리 조선 사람의 보편신조가 되기를 바라노라.”

인간력(人間力)의 총화, 사회력(社會力)의 총화를 ‘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민족사회를 물론하고 민족사회의 총노력의 결정은 그 민족사회의 문화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므로 문화라는 것은 민족사회의 문야(文野)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기이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사상은 문화의 중심이다. 사상이 없는 곳에 역사가 없다는 철인의 말도 있거니와 사상이 없는 곳에는 문화가 돌아날 터가 없다는 것이다. 천도교의 인쇄운동은 후천개벽운동인 동시에 인문개벽운동 즉 인류의 신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천국운동이란 말은 ‘후천신문화건설운동’이라 말하여도 틀림이 없다.<sup>4)</sup>

이 글에 의하면, 어떤 사회든지 문화가 존재하며, 그 중심은 역사와 사상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조선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회가 창조하고자 하였던 문화는 바로 ‘신문화(新文化)’였다.

천도교는 3·1운동으로 교단의 지도자와 많은 교인들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천도교청년들은 청년단체의 결성을 통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9월 2일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창립하였다. 교리강연부는 세계의 새로운 문화흐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덕성과 지식을 함양하여 천도교 교리의 천명과 포교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는 창립 8개월 만에 1920년 4월 25일 천도교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천도교청년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天道敎理의 연구와 선전은 물론 ‘조선 신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신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식열의 고취, 교육 보급, 농촌개량, 도시중심의 계몽활동, 전문가 양성, 사상통일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청년들은 문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천도교청년회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천도교청년회 활동 중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문화운동의 선전을 위한 개벽사 운영과 강연활동이었다. 개벽사는 청년회 시기 동안 1920년 6월 월간종합지 『개벽』을 비롯하여 1922년 6월 『부인』, 1923년 3월 『어린이』, 1923년 9월 『신여성』을 창간 발행하였다. 이들 잡지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전부 청년회 본부 임원들이었다.

강연활동은 1920년 10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총 강연 회수는 34회였는데, 이중 순회강연이 26회였으며 강연 지방은 163곳, 강연에 참여한 인원은 약 7만 4천여 명에 달하였다. 강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내용으로 현시대는 신종교의 시대 즉 천도교와 관련된 것과 청년계몽을 통한 문화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강습활동과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문화운동가를 양성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4) 조기간, 『천도교청년당소사』, 천도교청년당본부, 1935, 60-61쪽.

이와 같은 문화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천도교청년회는 1920년 4월 개벽사를 창립하고 6월 『개벽』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개벽』은 창간 관두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선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개벽의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창간정신 즉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조선민족의 역사와 사상을 통해 조선문화를 창출해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창간동인 이돈화는 후천은 신사회, 개벽은 문화의 개조, 후천개벽은 신사회건설로 각각 설명하였다. 이는 비록 현실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조선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개벽』은 문화운동을 확산하면서 무엇보다도 ‘조선’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개벽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귀감이 될 만한 위인을 찾아 소개하였다. 즉 조선의 정신과 사상을 밝힐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였다. 서경덕, 이황, 이이, 최치원, 최충, 문익점, 최계우, 유길준, 이순신, 솔거 등이 그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다 김옥균과 전봉준을 포함하여 『조선지위인』을 출판하였다. 이외에도 김방경과 김옥균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처럼 『개벽』은 창간 초기부터 역사 속에서 위인을 발굴하여 조선의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 2. 일제의 식민지 현실 왜곡에 맞선 ‘조선문화론’의 제창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를 전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조선문화의 왜곡이었다. 일제의 강점 초기부터 일본적 국민 즉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기 위해 조선문화를 식민지 문화로서 재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일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문화의 낙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20년대 대대적으로 확충되는 조선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문화적 지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인의 정신생활, 경제생활과 밀접한 풍토, 종교, 제도, 관습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직접 실생활에서 접촉하고 그 의식주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풍토, 종교, 제도, 관습 등이 어떻게 오늘의 조선인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신생활 내지 경제생활에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중략) 민족적 조류가 지금도 예전과 같이 행해지고 있는 조선의 실생활을 우리는 학술적 조직적으로

5)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10, 157쪽.

조사 연구하여 그것에 의해 살아있는 조선을 이해해야 한다.<sup>6)</sup>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일제의 조선문화 조사작업은 조선과 일본의 동원(同源), 동조(同祖)에 관한 조사, 양 민족의 과거 교류에 관한 조사, 현생 시설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조선의 제도와 관습에 대한 조사, 마을 조사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21년 4월 26일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여 친일세력을 육성하는 한편 구관조사 사업과 조선사 편찬작업을 아울러 전개하였다. 이중 풍속조사는 25장 75개 항목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방대하여 17장으로 된 『조선풍속개요』 편찬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풍속조사의 부속사업으로 조선사회사정조사와 마을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선사회사정조사는 ①기초조사-토지, 생물, 인종, 외관(外觀) ② 사회생활-협동생활, 경제생활, 사상생활, 일상생활, 위생, 치죄(治罪) ③ 사회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마을조사는 마을의 연혁, 제도, 사회상태, 풍속 및 관습, 민가의 구조, 자연환경, 상업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사업은 조선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배정책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조사자료’라는 명칭으로 1923년부터 1941년까지 47권의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조선문화 조사는 강점 초기부터 식민통치의 이념인 동화주의의 양면성을 강화,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는 조선 역사의 왜곡으로 활용하였다. 일제의 조선 역사 왜곡은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둘째는 타율성론(他律性論), 셋째는 정체성론(停滯性論), 넷째는 당파성론(黨派性論)이다. 이를 통해 일제는 효과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식민지 시정에 대한 과장된 통계로 조선의 사회현상을 호도하였다.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는 호구조사 결과 조선에서 인구가 급증한 것을 중요한 치적의 하나로 내우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계의 수치에 성장, 발전, 진보를 덧칠하여 식민지 조선인의 삶을 왜곡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식민권력에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들은 거의 밝히지 않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였다. 이 책은 토지와 기상, 호구, 농업, 철도, 토목, 경찰, 위생 등 22개 항목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이처럼 총독부가 조선의 사정을 왜곡하자 개벽사에서는 『개벽』30호 권두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산업 교육 및 기타의 각 방면에 대한 연년 통계를 작출하고 일한합

6) 小田内通敏, 『朝鮮部落調査の過程』, 조선총독부, 1922, 1쪽.

방의 당시와 대조 설명하여서 조선의 발전을 과장한다. 뿐 아니라 조선을 잠깐 통과하는 외국인들까지 왕왕 근래 조선의 수년 발전을 칭양한다. 그러나 조선의 발전은 반드시 조선인의 발전이 아니다. 우리의 장탄단우(長歎短吁)할 비에도 실로 여기에 있으며, 제사 결의할 이유도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한다.<sup>7)</sup>

개벽사는 조선총독부의 통계는 과장되었고, 조선의 발전은 조선을 위한 발전이 아니다 라고 하여, 조선인의 삶을 왜곡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발전이 조선인의 발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이멸(夷滅)’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조선현실을 사실대로 밝힐 것을 주장하였다.<sup>8)</sup>

이에 따라 김기전과 박달성, 차상찬 등은 식민지 조선의 식민권력인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인 세력의 검찰’을 통해 조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개벽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발로 답사하면서 조선의 실상을 통해 ‘조선문화’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바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이다. 개벽사는 각도(各道) 도호(道號)를 간행하고자 하였다. 『개벽』31호에 의하면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더 좀 근거 깊은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 좋고, 더 좀 의식 넘치는 작사(作事)가 우리에게 있어 좋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써 바랄 일일까. 우리는 입만 열면, 붓만 들면 다 같이 가로되 조선을 위한다 하며, 사회를 위하노라 한다. 그러나 자기의 한 몸도 아니요, 또한 한 집도 아닌 사회와 민족이 그렇게 쉽게 위해질 것인가.

한 집을 위하는 사람은 천하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집의 가장된 그 한 사람이 가장 잘 그 집을 위한다. 이것이 가장된 그 사람뿐이 그 집의 정형(情形)을 가장 잘 아는 고(故)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감동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가장 잘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잘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 뿐은 진언이라 믿어도 잘못은 아니겠지.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이러한 일을 시행하기로 한다. 즉 조선의 일반현상을 근본적으로 답사하여서 그 소득을 형제에게 공개하기로 한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도(道)를 답사할 것이요, 답사한 그것을 그 익월호의 『개벽』에 부록으로써 공개할 것이다. 그 무슨 뜻이 있으리요. 조선의 혈손된 누구의 머리에나 조선의 금일 정형을 그대로 감명케 하여서 우리들 일반이 제각기 분명한 조선의 호주(戶主)되게 하자 함이며, 제각기 조선과 결혼하는 자되게 함이다.

즉 개벽사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시정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

7) 『조선의 발전과 조선인의 발전』, 『개벽』 30, 1923.12, 3쪽.

8) 『조선의 발전과 조선인의 발전』, 『개벽』 30, 1923.12, 4쪽.

조선을 각도별로 직접 답사를 하고 정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선인에게 올바르게 전달키로 하였다. 즉 조선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경남지역 조사를 위한 당부의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가을해 1년의 사업으로 조선문화에 대한 기본조사를 행하되 우리들이 몸소 各道의 各地를 實地로 踏査하여 그 査實한 바와 그 感得한 바를 매월호의 「開關」에 道號의 형식으로써 공개한다 함은 여러분이 일찍 알았을 것입니다. 京城驛을 떠난 그의 일행! 그의 일행은 專혀 그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 일을 위하여 第一着으로 174만의 慶南兄弟를 찾는 것이었다.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慶南文化의 基本調査! 일은 과연 크며 뜻은 사실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微力이 능히 이를 堪當할런지 晝宵의 우려는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朝鮮을 알자. 분명히 알자. 그래서 朝鮮의 사람사람이 제각기 「朝鮮의 光榮있는 明日」을 찾아내는 큰일의 임자가 되게 하자.」 우리의 일반정신은 여기에 맺혔습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역시 그러할 줄 압니다. 이 정신과 정신이 서로 합치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微力은 벌서 微力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써 慶南文化의 基本調査(합하여 말하면 朝鮮文化의 基本調査)—그러한 큰일을 감히 하려 합니다.9)

개벽사가 전개하고자 하였던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는 ‘조선을 조선인이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의 영광 있는 명일”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조선의 영광, 조선인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함이었다.

### 3. 3년간 13도를 발로 답사, ‘조선학연구’의 기초 마련

이러한 인식은 『개벽』34호 광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천하의 무식이 남의 일은 알되 자기의 일은 모르는 것만치 무식한 일은 없고 그보다 더 무식한 것은 자기네 살림살이 내용이 어찌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같이 무식한 일이 없다. 보라 우리 조선 사람이 조선형편이라고 하는 자기의 살림살이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남의 일을 잘 알되 자기의 일은 비교적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남의 살림살이는 잘 비평하되 자기의 살림살이는 어찌 되어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이 점을 심히 개탄하게 보아 금년의 신사업으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에 착수하며, 이어서 각도 도호를 간행하기로 하였으니 이는 순전히 조선 사람으로 조선을 잘 이해하자는 데 있으며, 조선 사람으로 자기네의 살림살이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를 자기네의 손으로 처변하고 정리하는 총명을 가지라는데 있는 것뿐

9) 「사고」, 『개벽』 32, 1923.2, 1쪽.

이다.”라고 하여,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조선의 발전을 조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개벽사는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 제(諸) 사회 문제의 원인 및 추향
- ◆ 중심인물 및 주요 사업기관의 소개 및 비평
- ◆ 인정풍속의 실제 여하
- ◆ 산업교육 및 종교의 상황
- ◆ 명승고적 및 전설의 탐사
- ◆ 기타의 일반 상세에 관한 관찰과 비평

개벽사가 전개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는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기초조사였다. “이번 한 번에 조선 전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완성하자 함이 아니요, 먼저 그 지방의 일반현상에 대한 기본개념을 얻고 그 지방의 형제와 더불어 기초적 연락을 위하고자 함이 이번 걸음의 주요한 뜻이 됩니다”라고 하였듯이, 각 지방의 기본을 조사하여 조선문화의 개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개벽적 대사업’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항목은 앞서 언급하였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연보』는 인구를 비롯하여 교육, 민속, 명승지 등 전반적으로 다르고 있었는데, 개벽사 역시 『통계연보』의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각도의 정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개벽사는 『개벽』34호 ‘경남호’를 시작으로 각 도호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도호 간행은 간단하지 않았다. 1923년 3월호를 기점으로 도호를 간행하고자 하였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한 달 동안 각도 전체를 답사한다는 것은 의욕에 앞섰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난관이 적지 않았다.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그러나 첫 사업으로 선정한 ‘경남호’는 예정보다 한 달 늦은 4월호에 부록으로 간행되었다. 경남호는 김기전과 차상찬이 30일간 경남 도내를 일일이 답사하면서 준비하였다. 이외에도 박달성이 참여하여 14차에 걸쳐 포덕 66년(1925) 12월호로 도호를 마무리하였다. 즉 1년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3년에 걸쳐 연재를 마쳤다.

개벽사가 포덕 64년부터 66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던 전국 각도의 문화조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개벽사가 추진하였던 도별 「조선문화의 기초조사」내용

조사 지역	발간호수 및 시기	주요 내용
경남	34호, 1923. 4	道勢. 교육, 종교, 산업, 조선인의 처지, 지리산과 남강과 관련된 애환, 잡화, 답사 여정과 소감 등
경북(1)	36호, 1923. 6	1부 22군 1도의 진한고국, 남선의 보고인 경북의 산업, 의구부진한 본도의 교육상황, 지방발전의 중심이 되는 본도의 청년단체, 나병환자의 은인 대구 나병원, 김충선의 기행, 경북의 민요와 한시, 기생 향랑의 죽음, 민원이 장천한 의성군청, 내가 본 경북의 각군 등
경북(2)	38호, 1923. 8	1천년 고도 경주지방, 종교, 동척, 울산만초
경북(3)	39호, 1923. 9	곡향 영천의 발전, 일선유희에 발광된 영천졸, 동해안의 대도시, 영덕은 어떠한 지방,
경북(4)	40호, 1923. 10	영남의 파축(영양)
경북(5)	41호, 1923. 11	동해의 일점벽인 울릉도를 찾고서, 이조에 공헌한 청송
평북(1)	38호, 1923. 8	도세, 평북의 산업, 교육, 국경의 1부 7군, 국경의 삼림, 잡화 등
평북(2)	39호, 1923. 9	묘향산으로부터 국경천리에, 내가 본 평북의 각군, 청강 이북과 흥경대 장군 등
강원	42호, 1923. 12	강원도 장타령, 조선의 처녀지인 관동, 도내 교육과 종교, 강원도의 산업, 영서 8군과 영동 4군, 이 땅의 민요와 동요, 관동잡영, 궁예, 민궁호, 강원도를 일독한 총감상 등
함북	43호, 1924. 1	함북 종횡 47일, 함북의 도세(역사, 교통, 산업), 함북 사람이 본 함북과 기자가 본 함북 등
충남	46호, 1924. 4	양반의 연수인 충남지대, 산업일독, 엄병이 충청남도를 보고, 전사상으로 본 충청남도, 민중식 의병과 홍주, 계룡산, 호서잡감, 명승과 고적, 갑오 이전의 호속일반 등
경기(1)	47호, 1924. 5	경기정형, 각 지역 정형, 고려인삼, 개성점원의 참담한 생활을 논하여 등
경기(2)	48호, 1924. 6	경성과 인천의 정형(학교, 종교, 문화계, 외국인 등), 경성의 빈민, 인물백태 등

평남	51호, 1924. 9	총언(연혁, 위치, 지세, 호수, 교통, 교육, 종교, 산물, 산업 등), 각 지역 정형(평양, 대동군, 안주, 개천 등)
함남(1)	53호, 1924. 11	가급인족의 함경남도(위치, 지세, 연혁, 인구, 교통, 교육, 종교, 사업, 경찰 등), 본도 열읍 대관(단천, 이원, 북청 등), 함남군세, 함남에서 본 이꼴저꼴
함남(2)	54호, 1924. 12	함남열읍 대관(함흥, 신흥, 장진, 정평, 영흥, 고원, 문천, 덕원, 원산, 안변 등), 북국 천리행, 함흥과 원산의 인물백태
충북	58호, 1925. 4	충청북도 총언(면적, 지세, 역사, 산업, 인구 등) 각지 정형(청주, 진천, 음성, 충주, 괴산, 영동, 옥천 등), 충북 3대명물과 2대광산, 호중잡기 등
황해	60호, 1925. 6	황해도 총관, 가공할 황해도 내의 일본인 세력, 각지 정형(연백, 해주, 웅진, 장연, 송화 등), 황해도의 3대 자랑과 2대 수치, 잡동사니, 군수제군에게 등
전남	63호, 1925. 11	조선의 보고 전남 대관, 전남의 3대 산업, 군세개관(광주, 화순, 담양, 곡성 등), 전남에 대한 지주의 세력, 점차조직화한 농민운동, 호남잡관 등
전북	64호, 1925. 12	전라북도 중형관, 조선인교육과 일본인교육, 산업상으로 본 전북, 일인에게 전멸된 전북의 토지, 전북의 청년운동과 노동운동, 명승과 고적, 열읍개관, 호남을 일독하고 등

<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표준에 따라 각도의 연혁과 도세 등의 종합적 해설, 각 지역의 개관, 명승고적,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이나 독특한 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도와 각 지역의 다양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어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조사내용 중에는 일제의 지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인에게 전멸된 전북 토지’처럼 일본인 세력의 잠식에 대한 비평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개벽사는 조선의 현실을 피눈물로 받아드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지역 조선문화의 기초조사는 일제의 왜곡된 통계와 시정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벽사는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13도를 답사하는데 적지 않은 고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의 시비 논란이었다. 시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의 부실이었다. 개벽사는 매월 1회씩 道 단위로 기본조사를 하였지만 그때그때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한 시한 내에 책을 발행하

였기 때문이 무한정 조사만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이것도 소위 道號란 말이나. 씨라고는 반 푼어치 들지 않고 빈껍데기만이로다”라고 혹평을 하였다. 이에 대해 박달성은 다음과 같이 양해를 구하고 있다.

기자는 이미 平北에서 실패를 당하였던 놈이외다.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는지라 威北에서는 기어코 승리를 얻으려 단단히 별렀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또 실패이외다. 할 수 없이 예전 바퀴를 다시 밟게 됩니다. 왜 그러냐? 원체가 難事요 大事이니까 실력부족이외다. 무엇이 그렇게 難事요 大事이냐? 적어도 몇 百方里, 적어도 몇 百萬人, 적어도 몇 千年史를 가진 그 道의 과거 현재 및 장래까지의 문화의 총량을 답사하기에 여간 月餘의 시일, 여간 1, 2 개인의 관찰로 감히 되었습니까. 여간 월간 잡지사로는 事 자치가 본래 환영치 아니할 것이외다.<sup>10)</sup>

한정된 시간 안에 광역지역인 도를 전체적으로 답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리였다. 더욱이 다양한 사람을 만난 취재를 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방리, 백만인, 천년사’의 문화적 총량을 답사와 채록,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잡지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인식의 부족이었다. 개벽사는 社告를 통해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전국을 답사하면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하는 과정을 마치 ‘여행자의 사육거리’나 ‘홍보 브로커’ 정도로 치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旅行欲者의 私欲거리로구나. 축하니 뭐니 하고 돈 푼이나 비노라 그리하였구나”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방해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현지를 답사한 소춘 김기전, 춘파 박달성, 청오 차상찬 등의 고생은 말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조선문화를 조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을 누볐다. 직접 현지를 발로 뛰면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춘파 박달성은 다음과 같이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런줄 알면서 왜 시작하였느냐? 그래도 해야겠습니까. 難事요 大事이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아니하면 할 놈이 없겠다고. 이때에 아니하면 다시 때가 없겠다고, 가다가 얻어지고 오다가 쓰러지더라도 개인의 피가 다 하고 社의 힘이 다 한다 해도 다 하기 그 때까지 우리의 손으로 향토의 문화를 저울대 복판에 올려 놓아보자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외다.<sup>11)</sup>

10) 「사고」, 『개벽』 43, 1924.1, 141쪽.

11) 앞의 주.

개벽사가 전개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는 ‘難事이며 大事’였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 아래 기본조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일제가 조선문화를 심층적으로 수집하여 식민정책에 반영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문화를 조사할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박달성뿐만 아니라 개벽사의 모든 직원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만하면 용하고 장하다고 해도 가할 듯합니다. 自讚自矜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하여 자긍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사실 일제는 강점 이전부터 우리의 문화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의 지리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강점 이후에는 중추원이라는 기관을 두어 조선의 민속을 비롯하여 조선문화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 겉으로는 조선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왜곡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벽사의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는 민족운동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벽사의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에 대해 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마치거든 그것을 자료로 하고, 기타의 미비한 것을 첨하여 별도로 한 책자를 만들어 발행케 행하였으며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1934년 11월 『개벽』이 복간되었을 때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는 “귀사는 비록 중간에 기구한 운명을 밟아 왔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과거 15년간을 하루같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조선문화 향상에 공헌이 많았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개벽사의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통한 ‘조선문화론’은 1930년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응하여 전개하였던 조선학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㉔

# 雜誌言論의 先驅者 靑吾 車相瓚論

- 抗日 言論鬭爭을 中心으로 -

신 현 득(문학박사)

## I. 선구자 청오(靑吾)

지난 11월 1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개벽사 사장 청오 차상찬(車相瓚) 선생에게 추서된 은관문화훈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일제에 대한 언론투쟁의 선두에 섰던 청오 선생의 공적을 현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잡지언론의 독립투사라면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지만 그중 딱 한 사람을 내세운다면 누구일까? 이 물음에 사람들은 청오 차상찬을 손꼽는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제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같은 대답이다. 실적으로 보아도, 경력으로 보아도, 투지로 보아도, 무엇으로 보아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청오를 '잡지언론의 선구자'라 불러 왔다.

차상찬의 붓은 일제의 총독부뿐만 아니라 거드름 피우며 권세를 부리던 귀족이나 친일파 따위도 사정없이 후려쳤다. 어느 때는 친일거두 한 사람을 어떻게나 까고 저미고 했던지 차상찬이 종로경찰서에 끌려가 구금되기도 하였다. 청오가 여러 사람에게 남긴 인상은 이러했다.

청오 차상찬을 잡지언론의 선구자로 첫손에 꼽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우리나라 잡지 중에서 청오의 손으로 만든 <개벽>지가 제일 앞장서서 일제와 싸웠기 때문이며, 그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1920년부터 내기 시작한 <개벽>지는 1926년에 72호로 강제 폐간되기까지 총독부로부터 발매금지 34회, 정간 1회, 벌금 1회의 제재를 당했다. 창간부터 총독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창간호를 세 번이나 다시 찍는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총 발행부수는 434,000여 권이며, 이 가운데 112,000여 권이 압수되었다. 총 72호 중 35호가 압수 발행정지 등의 수난을 겪었다.

<개벽>은 항일운동에서 뿐 아니라 신문화운동과 신문학운동에, 종교·역사·철학·국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민족정기를 일깨운 민족 잡지였다. 청오 차상찬은 붓 하나로 일제의 총독부와 마주 싸운 언론의 독립투사였던 것이다.

## 2. 普專教授 車相瓊

청오 차상찬은 1887년(고종 24) 정해 2월 12일에 강원도 春城郡 新東面 松岩里에서 成均進士 車斗永 公과 淸州 韓氏 사이의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두영 공은 생활이 넉넉하였고, 고종 초에 성균진사로 집안의 문맥을 이었다. 문장이 뛰어나 『오산설림(五山說林)』과 『향암일지(香岩日誌)』·『별집(別集)』등을 남겼다.

청오 형제 중 셋째형 상학(相鶴)은 청오보다 여덟살이 많은 1879년(기묘)생이었다. 셋째형 상학은 15세 어린 나이로 아버지를 이어 성균진사에 급제하였다. 천도교에 입교한 뒤에는 그의 문장력이 서울에까지 알려져 <만세보(萬歲報)>의 기자가 되었고, <천도교월보(天道教會月報)>의 초대 주간을 지내다가 곧 사장이 된다.

차상찬은 열아홉 살이 되던 1906년에 신설학교인 普成中學校(후일의 보성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학생들 중에서도 드물게, 머리를 깎고, 검정 물감을 들인 옷을 입고 다녔다. 천도교 진보회의 실행요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1학년이던 광무10(1906)년 차상찬의 작문 노트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글씨가 선비의 휘호로 잘못 볼만큼 달필이며 한문을 다룬 문장력이 뛰어나다. 청오는 중학교 1학년 때에 벌써 한문에 통달하고 한시 창작 실력이 있었던 것이다.

차상찬의 아호 청오(靑呑)는 ‘청청한 나, 싱싱한 나, 독야청청한 나, 굳센 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청오라는 호가 처음 활자화된 것은 <개벽>지 창간호에서였지만 그 이전부터 아호를 썼다.

청오 차상찬은 도산 안창호를 존경하였고, 흥천 보리울에 가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해온 독립지사 한서(翰西) 남궁억(南宮穉) 선생을 존경하였다.

청오는 강원도 사람임을 늘 자랑으로 여겼다. 서울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강원도 학생들을 모아 관동학회를 조직하고, 양양 군수를 역임한 한서를 회장으로 모셨다. 보성중학 3학년 때인 융희 2년(1908)이었다.

1910년 3월, 23세의 차상찬은 보성중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된다. 졸업식을 앞두고 우등상과 졸업생 75명을 대표해서 답사를 읽었다. 졸업생 중에서 성적이 1등이었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막내의 중학교 졸업식 구경을 한다며 아버지 두영 공과 어머니 한 씨가 춘천에서 왔고, 졸업식 날에는 <천도교회월보>사장인 셋째형 차상학이 학교재단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졸업식장 앞자리를 잡고 있었다.

청오는 다시 普成專門學校(현 고려대학교의 전신)에 진학하였고 성적이 뛰어났으므로 졸업 후 모교 보성전문학교의 강단에 서게 된다. 동료 교수 중에는 후일에 중국

으로 가서 임시정부 요인이 될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도 있었다.

청오가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개인적인 불행이 닥쳤다. 홍천에서 보통학교 훈도로 있던 넷째형 차상준(車相駿)이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아버지 두영 공과 모친 한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어서 집안의 기둥으로 믿고 있던 셋째 형인 <천도교회월보> 사장 향산 차상학(車相鶴)이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집안이 기울고 있음을 느낀 청오는 셋째형을 고향땅 춘천에 묻고 난 다음 형이 못 다한 일을 맡기로 하였다. 청오는 곧 천도교 청년 교리강연부의 야뢰(夜雷) 이돈화(李敦化)를 찾아갔다.

### 3. <開闢>창간 동인

1919년 3월 1일 정오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의 함성은 연일 전국에서 울려 퍼졌다. 전국에서 시위 참가 인원이 202만에 이르렀고 일본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만 7천 5백 명이나 되었다. 다친 사람이 1만 6천 명, 감옥에 끌려 간 사람이 4만 7천 명,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해 불에 탄 교회당이 47개, 불에 탄 가옥이 700여 채나 되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을 낸 천도교에 모진 수난이 닥쳤다. 일본 경찰이 와서 민족대표에서 제외된 간부까지 모조리 감옥으로 끌고 간 것이었다. 서명만 안 했을 뿐이 지 독립만세에 직접 나서서 일했다는 혐의였다.

남겨 둔 간부까지 구금이 되자 천도교는 수뇌부가 없고 명령 계통이 마비된 종단이 되고 말았다. 송현동 34번지 천도교 중앙총부에는 형사들이 몇 사람씩 눈을 부라리고 몰려 와서 사무실을 뒤졌다. 민족대표의 자택도 같은 방법으로 수색을 당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본부 교회에서는 청년들 힘으로 시일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문을 봉송하는 소리가 전보다 컸다. 모두가 만세 운동에 가담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어수선한 시간이 6개월 쯤 지나자. 세상은 다소 안정이 되는 듯하였다. 그러자 천도교 청년들이 한데 뭉치었다.

차상학을 이어 천도교의 기관지 <천도교회월보>의 주간을 맡고 있던 야뢰 이돈화가 정도준 등 다섯 사람 청년과 모임을 가졌다. 1919년 9월 2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천도교 청년 교리강연부'였다. 정도준을 회장으로 하고 실무를 야뢰가 맡기로 하였다. <천도교회월보>의 주간 이돈화는 35세의 젊은 나이였다.

청오 차상찬이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전문학교 교수직을 두고 천도교 청년교리

강연부에 뛰어든 것이 이때였다. 야뢰가 따뜻이 청오를 맞았다. 이리하여 차상찬은 1919년 겨울부터 천도교 청년교리강연부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듬해인 1920년부터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의 천도교는 어느 종교보다 강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서북지방의 교세가 강해지면서 전국은 마을마다 동학의 교리가 미치게 되었다. 교포가 살고 있는 만주 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일본 땅에까지 교세가 넓혀지면서 천도교도 300만을 자랑하게 되었고, 많은 지식인과 인재들이 이 진취적인 민족 종교로 모여들게 되었다.

1921년 5월 1일에 이돈화·차상찬·박달성 등이 ‘천도교소년회’를 창립한다. 그 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로 선포한다. 소년회의 조직과 지도에는 김기전이 앞장서서 일을 하였고, 일본에 유학중인 소파 방정환이 뜻을 같이하였다. 1923년에 소파가 일본에서 돌아오자 어린이 운동은 그에게 인계된다.

천도교청년회 편집부에 맡겨진 일은 출판이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편집부에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할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때에 평북 박천에 사는 열성 교도 崔宗禎과 邊君恒 두 사람은 각각 1천원과 5백원의 성금을 내놓으며 말했다.

“천도교 청년회의 젊은 교도들이 종단을 지키고 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지요. 이 돈을 청년회의 사업에 써주세요.”

편집부의 이돈화가 감동을 하며 거금을 영수하였다. 그는 곧 편집부 부원들을 모우고 출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一熊 李斗星, 春坡 朴達成, 石溪 閔泳純, 청오 차상찬, 小春 金起田 등, 이들이 ‘개벽 창간동인’ 이었다.

월간 <개벽>지를 창간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총독부에 내었다. 신청서에는 천도교청년회 편집부의 대표 이돈화를 공식적인 편집인으로 하였다. 이두성을 발행인으로 하고, 인쇄인을 민영순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벽사 안에서는 기금을 회사한 최종정을 사장대우를 하도록 하였다. 발행신청을 한 것은 1920년 1월 18일이었다.

몇 달 후면 잡지 허가가 나리라는 기대를 하며 운영진을 짰다. 처음부터 참여해준 6인의 창간동인이 모두 편집과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3세인 청오 차상찬은 도호를 노암(蘆菴)이라 하였다. 청오는 동인 중에서는 학벌이 있는데다가 나이로 따져 민영순, 이돈화 다음이었다. 그 위에 필력이 있었고, 이론이 밝고 투지로는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천도교 중심부에 자리잡은 서열이 늦었다.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는 방정환보다는 12년이나 나이가 많았으나 청오는 그보다도 서열이 늦었다.

그래서 잡지의 판권장에 이름을 별만한 자리는 서열 선배에게 내어주고 주간 이돈

화가 지명하는 대로 편집국장 자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편집국장은 편집 실무를 맡는 중요한 자리여서 청오의 기능에 알맞았다. <개벽>지의 편집국장이 되었다.

#### 4. 세 번 찍은 개벽 창간호

천신만고 끝에 <개벽>지가 탄생하였다. <開闢>창간호! 1920년 6월 25일에 나온 7월호였다. 경무국 도서관에 검열본을 디밀었다. 그러자 검열관 한 사람이

“만세 앞장선 천도교노 잡지 아니므니까? 알겠소.”

하며 고개를 까닥했다. 그리고, 발매금지처분을 내렸다. 다시 조판해서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였다.

기휘(忌諱) 스탬프가 찍혀 온 것은 김기전의 글, 차상찬의 한시 「慶州懷古」, 「南漢山城」 두 편과 기타의 여러 기사였다. 표지의 맹호 그림까지 바꾸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개벽 호외>라는 이름을 달아 인쇄를 끝낸 다음 도서관에 납본하였다. 그런데 총독부 당국은 이 호외조차 검열에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편집국에서는 경무국 도서관에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고치고 빼고 하여 6월 30일에 납본을 제출했더니 그제야 ‘검열필’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며 탄생한 것이 <개벽 임시호>였다. <개벽>은 시작부터 모진 시련을 겪었던 것이다. 이렇수록 독자들은 이 잡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이 임시호는 며칠 사이에 매진되고,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그들의 기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차상찬의 한시를 풀이해 보자.

##### △경주 회고(慶州懷古)

탈해의 까치 계림의 닭이 날아 흩어져 만사는 끝났구나  
서라벌 왕기는 차갑기 가을 같다.  
영웅의 한탄이 산하를 덮고  
망국의 수치감이 하늘땅에 넘치네

천리 金城은 예대로이건만  
석양 옥저의 쓸쓸한 가락.  
앞 수레의 잘못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하지 않았기에  
여기저기 누대가 언덕으로만 남았네.

鵲散鷄飛事已休 東都王氣冷氣秋 山河不盡英雄恨 天地猶餘故國羞  
千里金城依舊在 夕陽玉笛至今愁 前車未得後車戒 幾處樓臺成古邱

한학이 넉넉했던 청오는 한시를 잘 지었다. 한시의 대가였던 셋째형 향산에게 받은 영향이기도 했다. 이 한시는 보성중학교에 다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얻은 작품이었다. 차상찬은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청오(靑梧)라는 아호를 활자화 시켰다.

「경주회고」는 용성국에서 알로 태어난 탈해가 궤짝에 넣어서 바다를 떠돌다가 까치 울음 때문에 바닷가의 노파 아진의선에게 발견되었다는 것과 계림의 닭 울음 때문에 호공에게 발견된 김알지 등 『삼국유사』의 설화에서 시작하여 신라의 쇠망을 한탄한 내용이었다.

‘앞 수레의 잘못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독자에게 호소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선조의 잘못을 깨달아 나라를 도로 찾자는 뜻을 숨겨 둔 것이었다. 일제가 이 작품을 지상에 남겨둘 리 없었다.

#### △남한산성(南漢山城)

한 개 옛성이 만고에 부끄럽구나  
남아는 여기 와서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네  
가련한 상장은 장검이 없어  
당장 늙은 포로의 머리를 베지 못하는구나.  
一片孤城萬古羞 男兒到此淚堪流  
可憐上將無長劍 未斬當年老虜頭

이 시는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병자국치를 한탄한 노래이다. 독자는 늙은 포로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청오의 생각에는 우리 땅에 포로처럼 와 있는 늙은 총독이었을 것이다. 청오가 남한산성에 上將의 모습으로 서봤지만 장검이 없어 총독의 머리를 덩장 베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는 뜻을 숨겨 둔 듯하다.

잡힐만한 증거를 두지 않고 은유적으로만 시를 노래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경무국 당국은 두 편의 시작품을 놓고 고개를 가웃가웃하다가 기회의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 5. 서른 개의 필명

<개벽>지에 대한 일본 당국의 강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럴수록 이 민족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높아갔다.

의암 손병희는 수감 9개월인, 1919년 11월 28일에 중풍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7개월 뒤에는 병이 재발하여 차츰 악화되어 갔다. 1920년 징역 3년 언도를 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인 상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의암은 병세가 악화되어 1922년 5월 19일, 새벽 3시에 세상을 떠난다.

교조 환원의 충격 속에서도 천도교청년회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1923년 9월 2일에 청년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천도교청년당을 조직하였다.

<개벽>지 편집에 여념이 없는 차상찬이었지만, 청년당에도 가입하여 1925년부터는 중앙 집행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청년당이 이루어지면서 개벽사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청오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이후의 일이었다.

개벽사에서는 1923년, 조선 13도 각지를 차례로 답사하여 도민의 생활 현황을 조사하고, 고적과 풍물을 특집으로 소개하자는 편집 계획을 세웠다. 차상찬의 제안에서 이루어진 기획이었다. 이 기획은 이후 3년에 걸쳐 이어오다가 1925년 12월호 전라북도 특집에서 끝을 맺는다.

편집국장 차상찬은 편집국 일을 몇 사람에게 나누어 맡기고 몇 달 간격으로 직접 답사에 나섰다. 답사할 내용은 도내의 문제점과 현황, 중심 인물과 주요기관 소개, 인정 풍습의 실제, 산업, 교육, 종교의 현황, 명승고적과 전설 조사, 기타였다.

이리하여 1923년 4월호(통권34호)에 경상남도의 특집이 이루어졌다. 차상찬의 필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목차를 장식하게 된다.

이후 청오 차상찬은 본명 아호 외에 壽春山人·月明山人·三角山人·鷺棲山人·翠雲生·江村生·觀相者·史外史人·車記生·車天子·車賤子·酒賤子·風流郎·考古生·門內漢·傍聽生·禿頭博士·嘉會洞人·三清洞人·차들이·각살이·一記者 등 수많은 필명으로 글을 썼다. 본명 아호를 합치면 모두 서른 개의 이름이었다.

그의 글은 평문·기사·역사·인물평·설화·민요·수필과 한시 등 다양했다. 청오는 닥치는 대로 글을 쓰는 문사였는데 그 주제는 왜놈타도였다.

## 6. 발로 댄 삼천리

「조선 문화의 기본조사」는 겉으로 조선의 나라 살림을 알아본다는 것이었지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문화침략의 실황을 조사하여 조선인들에게 알리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조사한 내용으로 <개벽>지에 도별 특집을 마련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경남도호 (34호 1923. 4. 1.) 답사자 ; 차상찬, 김기전
- △경북도호 (36호 1923. 6. 1.) 답사자 ; 차상찬
- △평북도호 (39호 1923. 9. 1.) 답사자 ; 조일연
- △강원도호 (42호 1923. 12. 1.) 답사자 ; 차상찬
- △함북도호 (43호 1924. 1. 1.) 답사자 ; 박달성
- △충남도호 (46호 1924. 4. 1.) 답사자 ; 차상찬
- △경기도호① (47호 1924. 5. 1.)
- △경기도호② (48호 1924. 6. 1.)
- △평남도호 (51호 1924. 9. 1.) 답사자 ; 김기전, 차상찬
- △함남도호① (53호 1924. 11. 1.) 답사자 ; 박달성
- △함남도호② (54호 1924. 12. 1.) 답사자 ; 차상찬
- △충북도호 (58호 1925. 4. 1.) 답사자 ; 차상찬
- △황해도호 (60호 1925. 6. 1.) 답사자 : 차상찬, 박달성
- △전남도호 (63호 1925. 11. 1.) 차상찬
- △전북도호 (64호 1925. 12. 1.) 차상찬

특집 중 「평북도호」는 제목이 ‘조일연’ 기명이고, 내용에는 ‘일기자’ 기명이다. 뒷편에 곁들인 같은 일기자 기명의 「청강 이복과 홍경래 장군」은 여러 면으로 보아 청오의 글로 보인다.

「경기도호」① ② 중, ①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을 다룬 기사였다. ‘특파원’, ‘일기자’ 등의 기명으로 되어 있어, 실명을 알 수는 없다. ‘일기자’ 기명은 차상찬 외에도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내용으로 보아 차상찬이 대부분을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호」②는 차상찬과 박달성 등이 쓴 내부 원고에 외부 명사의 원고를 받아서 엮고 「서울이란 이렇소」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므로 차상찬은 함북, 평북을 제외한 지역을 발로 밟아서 일제에 짓밟히고 있는 겨레의 실황을 살폈던 것이다.

강원 지방을 답사하는 데에 날수로는 89일이 걸렸다. (강원도호 108쪽).

전남을 45일째 취재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개벽 발행금지. 급속 상경 요망’이라는 전보가 왔다. <개벽>62호(1925년 8월호)에 해외의 독립운동가 12인을 42쪽에 걸쳐 소개한 것이 총독부의 비위를 건드려 발행정지 처분이 내린 것이었다.

청오는 보아가며 다시 와서 남은 고장을 답사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본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곧 함경도 출장을 가게 되었고, 10월 15일에 발행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연락을 듣고 바빠 서울로 올라와 기사를 쓰려고 하니 시간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목포 영광 나주와 전남에 속해 있던 제주도는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정리하였다. (전남도호 88쪽)

청오가 전국 답사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가는 3년의 설을 답사의 길에서 보내었다는 다음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이 1월 29일(1925), 음력으로 선달그믐이다. 나는 충북 진천을 지나 음성으로 가는 80여리의 길에 들어섰다. (중략) 나는 지방 답사를 하노라고 객지에서 음력 과세를 세 번째 한다. 재작년에는 경남 함양에서 보내고, 작년에는 충남 홍성에서 보내고 금년에는 음성에서 보낸다. (충북도호 91쪽)

### (1) 첫 출발 경상남도호

청오는 철저한 계획을 하고 답사를 시작하였다.

- △도별로 지방의 역사와 지세 기후 인구, 특산물 등을 밝힌다. 특히 일본 사람이 많으며 조선 사람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가를 밝힌다.
- △조선인, 일본인의 학교 수, 학생 수, 교사의 수, 미취학 아동수를 조사한다. 이를 도표로 밝혀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린다.
- △농업, 임업, 광업, 어업, 상업 등 모든 산업에서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권을 조사한다. 이를 도표로 밝힌다.
-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농토와 산림, 교통요지의 부동산을 조사한다.
- △종교를 조사하되 일본 종교가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가를 밝힌다.
- △각군을 답사하여 유적을 조사하고 특히 임진왜란 때의 격전지와 반일 자료가 될만한 유적을 집중 취재한다. 유적지를 답사한 소감을 漢詩에 담아서 발표한다.
- △지방발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소개한다.
- △자립정신이 강한 지방을 소개한다.
- △거들먹거리는 친일파를 공격하고, 몰들어가는 倭風을 비판한다.
- △민요와 전설, 민속 등을 조사하여 기사에 곁들인다.
- △지방을 돌아본 소감을 곁들인다.

이런 취재 목표로 마련한 첫 번째의 특징이 <개벽>34호(1923년 4월호)의 일부인 '경남도호'였다.

먼저 차상찬이 일기로 적은 「서울에서 함양까지」의 여행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벽사에서 1923년 새 사업으로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계획하고 먼저 경상남도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 2부 18군을 돌아보기 위하여 차상찬과 당시의 개벽사 주간 김기전이 그 조사원으로 나섰다.

차상찬 김기전은 1923년 2월 2일 오후 7시 20분, 개벽사 직원의 전송을 받으며 남대문 역에서 3등차를 탄다. 이튿날인 2월 3일 새벽에 삼랑진에 내려 5시 20분에 삼천포 마산 사이를 왕래하는 철도, 삼마선(三馬線)을 갈아타고 낙동역을 지나자 날이 새었다.

그는 진주에서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일기로 적었다.

진주는 경남의 중심지요, 도청소재지다. 우리 조선민족의 가장 많은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선조조 임진왜란 때 진주 동포의 선조 6만여 명이 일시에 순절한 곳이다.

남강가로 향하니 논개의 이름이 빛나는 의랑암이 강가에 홀로 섰고, 세 장수 김천일·최경희·황진의 충혼을 조상하는 강물이 울면서 흐른다. (경남도호 56쪽)

진주 답사를 마치고 청오와 소춘은 행선지를 나눈다. 소춘은 사천과 남해·부산 등지를, 청오는 산청·함양·지리산 등지를 취재하기로 하였다.

청오는 계속 일기를 적었다.

#### △13일 화요일 맑음

산청 군청 면사무소, 유지 등을 방문하고 함양군 사근에 이르렀다. 이곳이 고려말 우왕 때에 삼도도원수 배극렴이 왜구의 대군과 싸우던 곳이다. 박수민, 배극연 두 장수가 전사하고 5백 명 장정이 장렬하게 목숨을 바쳤다. 핏물이 흘렀던 내의 이름을 혈계(血溪)라 한다.

아, 함안의 동포야. 이 원한을 아는가, 모르는가? 오륙백 년 전 일이라도 이 원한을 생각하면 참으로 뼈가 아프고 피가 끓는다. 나는 눈물을 참고 시 한 수를 적었다.(경남도호 65쪽)

청오의 외침은 일본의 조선 침략이 왜구에서 비롯되었음을 동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었다.

답사를 마치고 편집실로 돌아온 차상찬은 부산과 남해안 일대를 돌아보고 온 김기전의 글을 합쳐 「경남도호」를 엮었다.

그는 청오, 차상찬, 일기자라는 이름과 무기명으로 기사를 다루었는데 일본을 두드릴 것이면 무엇이든지 썼다. 글은 칼날 같았다. 차상찬은 모든 기사를, 나라를 빼앗기고 차별 대우를 받는 조선 사람에게 맞추었다.

먼저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 현황을 비교하면서 그 차등을 비판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같은 땅에서 조선인과 같이 살면서도 학교를 따로 두고 있었다. 조선인 초등교육기관을 보통학교라 하고, 일본인의 것은 심상소학교라 하였다.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을 고등보통학교, 일본인의 것은 중학교라 했다. 중등 여학교는 조선 사람의 것이 여자 고등보통학교, 일본인의 것이 고등여학교였다.

1923년 당시 경남에서 공립 보통학교 수는 93개교였고, 재학 아동 수는 2만 6천

399명이었다. 일본인 공립 심상소학교 수는 76개교에 재학 아동은 1만 386명으로 일본인 미취학 아동은 불과 75명이었다. 여기에 비해 조선인 취학 아동은 적령아동 24만 9688명의 2퍼센트가 되지 못하였다.

당시 부산을 포함한 경남에서 중등학교는 일본 학생을 수용하는 釜山中學校와 조선 학생을 위한 東萊高等普通學校 두 개교 뿐이었다. 부산중학교는 1913년에 세워졌고, 동래고보는 그보다 9년이 늦은 1922년에 세운 신설학교여서 전교생이 2학년 103명에 교원수 4명이었다.

중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여학교는 일본인 학교가 2개교였고 조선인 여학교는 없었다. 일본인 유치원은 있었으나 조선인 것은 없었다. 상업학교, 농업학교, 공업 보습학교 등 실업학교는 비교적 형편이 좋은 편이었지만 이것도 주민 수가 적은 일본인 학교에 비하여 교원 수, 학생 수가 적었다. (경남도호 5~10쪽)

이로써 총독부가 일본인에 비하여 조선인의 교육에 얼마나 차등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된다. 차상찬은 이런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숫자를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조선인의 교육 현실은 전국이 같았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경남의 조선인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참상을 「뒤집힌 등지에 놓인 위태로운 새알=覆巢下の 危卵」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의 농장이라면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운영하는 ‘동양척식(東洋拓殖)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수많은 일본인 농장이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일본이 조선에서 경제 독점을 하기 위해 설립한 국책 회사이다. 조선 농민이 가진 땅을 강제로 사들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료로 거둬들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일을 한다. 이 착취기관을 줄여서 ‘東拓’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인이 가진 다른 농장들도 동척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 농민을 착취하는데, 경남 창원외의 무라이(村井) 농장의 근황을 살펴보면 이렇다.

이 농장도 1908년에 설립하여 벼 농사와 과수재배를 한다. 차지한 토지는 창원에서 김해 일부에 이르기까지 약 3천정보다. 200평을 한 마지기로 쳐서 4만 5천 마지기가 되는 엄청난 땅이다. 이 땅을 소작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100호, 조선인이 1천 3백호나 된다. (경남도보 16쪽)

동척회사 부산지점에서는 42인의 점원을 이용하여, 경남 일대의 토지를 경영하면서 일본인이 조선에 이민하도록 자금 조달을 해주고 있다. 동척이 부산을 포함한 경남 일대에 가지고 있는 토지는 8천 656정보로, 12만 9천 840마지기에 이르는 땅이다. (경남도호 20~21쪽)

경남의 땅은 이처럼 외인인 일본 사람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조선 사람은 그 소작이나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작에 생계를 걸고 있는 조선 농민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기에다 총독부는 국유 황무지, 간척지, 소택지의 99.9%를 일본인에게 양도하고 있다. 그 이권이 또한 엄청나다.

어업도 같은 형편이다. 경남의 1만 3천호 어민이 1천 8백호의 외래 일본 어부에게 유린되고 있다. 일본의 자본을 이길 수가 없는 형편이다. 청오는 이를 숫자와 표로 제시하였다. (경남도호 22~23쪽)

상업권 또한 같은 형편이다. 몇 사람 일본인이 부산의 상권을 거의 거머쥐고 있다. (경남도호 26쪽)

임야가 또한 그러하다. 경남의 임야 88만 정보 중에서 10만 8천 정보를 민간인에게 대부하고 있는데 그대상이 대부분 일본인이다.

지리산 주민들은 벌써 10여 년 전에 그 생명선을 잃은 현실이다. 지리산의 중간 높이가 이하의 산림 중 3분의 2는 민간인의 것이었는데 총독부에서 토지조사를 한다며 기한을 정해놓고 자기 소유권이 있는 산은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데다 관공서의 절차를 잘 모르는 무지한 두메 사람들이 권리가 무엇인지, 국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자기 소유의 산이 모두 국유림이 돼버린 것이다.

총독부는 이렇게 하여 산골 사람들에게 빼앗아 국유림으로 만든 산림 중에서 지리산에 속한 함양·산청·하동의 1만 4천 766정보를 일본 교토토오 제국대학 연습림으로 80년 간 대부를 해주고 맡았다. 또한 산청·하동의 2만 8천 804정보를 같은 조건으로 큐우슈우 제국대학 연습림으로 대부해주었다.

이들 대학에서 연습림의 관리인을 두었기 때문에 산을 의지하여 나무그릇을 만들고, 숲을 구워서 내다 팔던 산골짜기 사람들은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살길을 잃게 되었다. (경남도호 28~31쪽)

## **(2)일본인이 집어삼킨 땅과 산업**

일본이 집어삼킨 땅과 산업은 전국에 널려 있었다. 청오가 각 지방을 답사하고 쓴 몇 개의 기사를 살펴본다.

### **△서울 인구의 4분의1이 넘는 일본 사람**

1924년 당시 서울의 인구는 약 29만이었으며, 이중 조선인이 약 21만 일본인이 약 8만이었다. 일본인이 서울 전인구의 4분의 1이 넘어, 3분의 1에 가깝다는 사실이 놀랍다.

(경기도호② 40쪽 상단)

### △府와 마찌(町)

일본인이 처음에 조선에 왕래하기는 서울 평양 대구와 개항지인 부산 군산 인천 원산 청진 등지였다. 그러던 일본인이 함방 후 물밀듯이 들어와 거류민단을 조직하고 모든 행정과 경제적 산업적 이권을 차지하고, 일본인 왕래가 많은 곳에 부(府)라는 제도를 두었다. 같은 도시라도 개성이나 함흥처럼 일본인이 적게 사는 곳은 부로 승격시키지 않았다(경기도호② 42쪽)

그리고 일본인이 많이 사는 마을을 마찌(町)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부(府)는 도시 중에서 일본인이 많이 사는 곳을 뜻하고, 마찌는 일본인 마을이었다. 마찌에는 집값이 오르고 동이라 부르는 조선인 마을은 몰락되어 갔다.(경기도호② 48쪽)

### △일본인에게 점령당한 大邱

청오는 대구를 둘러보고 다음과 같이 기사를 정리했다

어디든지 도회지라면 주인은 일본사람이다. 고종 30년(1893)에 일본인 약장수 두 사람이 약을 팔러 온 것을 시작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경부선 철도공사를 거치면서 1904년에 1천8백 명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30년이 된 지금에 3천 677호, 1만 5천 310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대구 인구의 5분의 1인데, 대구의 토지와 집 80퍼센트 이상을 지니고 있다. 대구도 일본인에게 점령당했다. (경북도호 40쪽)

### △全南은 大地主 절반이 일본 사람

전남은 특히 땅이 넓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 착취가 심했다. 토지 200정보(약 200헥타르, 3천마지기) 이상의 지주 30명 가운데 절반 15명이 일본인이었다. 이중 일본인 땅이 가장 많은 곳이 나주인데 일인 농가가 400호, 다음이 광주 200호, 그 다음이 담양 160호, 함평과 무안이 110호라 하였다. (전남도호 115~116쪽)

### △大田은 충남의 새日本

충남을 답사에서 청오는 대전이 신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물려든 일본 사람을 보았다.

대전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적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경부, 호남 철도 개통으로 발전한 곳이다. 이 정보를 먼저 안 일본인들이 전 시가지의 요지를 죄다 점령하였다. 현재 일본인의 호수가 1천 82호이며 일본인 인구는 4310명이다.

조선인은 변두리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호수가 겨우 402호, 사람 수도 일본인의 절반이 되지 않는 1천 949명이다. 조선 땅의 도시에 일본 사람 인구가 배나 많

다니 놀랍지 않은가. 대전역을 내려서 시가지를 돌아보면 일본을 여행하는 느낌이 난다.  
(충남도호 120쪽)

일본인이 더 많이 사는 대전은 일본인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라고 청오는 탄식한다.

#### △日本이 삼킨 黃海道

부영이 집 같은 조선을 얻은 일본 사람들은 썩 먹고 알 먹는 격으로 정치의 세력을 차지하고 경제 세력까지 차지하여 병합 후 불과 몇 년에 벌써 조선인 이권의 대부분을 침식하였다.

특히 황해도는 행인지 불행인지 토지가 기름지고 물산이 풍부한 까닭에 북부 조선에 있어서 다른 지방보다도 더 유린을 당하고 있다. 부서진 새집에 완전한 새알이 없을 것은 짐작하는 일이지만 실지로 그 현상을 보니 스스로 애처로운 생각이 솟아나고 놀라서 가슴이 뒹다.

나는 새삼스레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세력 여하를 조사하여 일반 독자에게 제공할 뿐이다. (황해도호 82쪽)

이렇게 서두를 시작한 청오는 각 산업계에 침투한 일본인 세력을 수치를 기록한 도표로 내놓았다.

먼저 황해도 내에 땅부자 일본인을 16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는 8천 952.2정보(13만 8천 283마지기)를 가진 조선흥업 주식회사와 3001.9정보(4만 5천 285마지기)를 가진 모리 농장 등이 있다. 이들은 땅을 사들여 거의 조선인에게 소작을 주고 있었다.

1천 정보 이상의 산을 가진 자가 15명 있었는데 그 중에는 1만 9천 534정보(약 1만 9천 500헥타르)의 임야를 가진 미쯔이 합명회사와 1만 8천 832정보의 임야를 가진 동척회사 등이 있었다.

광산을 가진 일본인이 14명이었는데 이들이 금·은·철·석탄·규사 등의 광산을 모두 쥐고 있었다.

어업을 하는 24개의 일본인 어업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는 배 365척, 뱃사람 1460명을 거느린 조기잡이 어업조합이 있었다. 이들이 서해의 조기를 거두어 가고 있었다. 이밖에 산업의 구석구석에서 일본 사람의 경제침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오는 이 통계의 자료 수집을 위해 황해도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는데, 황해도를 일본인이 삼킨 썸이라고 하였다.

청오는 전북 특집에서 8개의 제목을 뽑아 31쪽에 이르는 기사를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일인에게 전멸된 전북의 토지」를 큰 활자로 뽑았다.

### △日人에게 全滅된 全北의 土地

수풀이 좋으면 도깨비가 피고, 웅덩이가 깊으면 송사리가 끊는 법이다. 전라북도는 조선의 보고요 쌀 창고이다. 토지가 기름지고, 기후가 온화하여 수륙 교통이 또한 편리한 까닭에 일본인의 침략이 다른 곳보다 더 격심하였다.

임업, 광업, 어업 등은 같은 형편이므로 말을 앓기로 하고, 조선인의 유일한 생명인 토지까지 모두 그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중에서도 평야, 달갈로 치면 노른자위 같은 ·김제 ·만경 ·익산 ·옥구 ·정읍 ·전주 ·고창 등에는 그들의 세력이 놀랄만하게 뿌리박았다. 농장으로 정미공장으로, 수리조합으로 방방곡곡이 유린을 당하여 조선인의 전 생활을 침탈하였다.

작년의 대지주는 금년의 자작농이 되고, 금일의 자작농은 다음날의 소작인이 되어 배주고 뱃속 빌어먹는 격이 되었다.

지난날의 보고와 쌀 창고는 벌써 남의 것이 되고, 조선인은 농노가 되어 그날그날을 지내면서 배고픔과 추위에 눈물을 흘리다가 북간도로 가거나 대판, 동경의 노동자로 흩어진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여의치 못하다.

이제 새삼스럽게 그 상황을 들어 말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의 병세를 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있다. (전북도호 95쪽)

청오는 일본인의 토지 약탈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증거로 호남에서 토지 50정보(750마지기)이상을 차지한 일본인 61명의 지주 일람표를 만들어 그 이름과 소유 토지의 넓이와 그 소재지를 알렸다.

이 중 동척에서 가진 땅만 8천 851정보(13만 2766.1마지기)라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총독부에서는 국유로 된 미개간지를 모조리 일본 사람에게 대부하고 있었다. 청오는 50정보 이상의 미개간지를 가진 일본인 24명의 표를 만들어 실황을 알리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하여 대부받는 미개간지에 대자본으로 관개사업을 하고 대규모의 수리조합을 조직하여 돈과 총독부 관리가 후원하는 힘으로 소지주인 조선인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인은 소유한 토지와 생산과 이윤이 늘어나지만 소지주인 조선인은 이익보다 당장 그 조합의 부담금을 내기가 어려워 토지를 팔아버리는 까닭에 다수의 조선인 토지는 자연히 소수 일본인 자본가에게 넘어가고 만다. (전북도호 95~98쪽).

### △銀魚와 私娼窟까지 日人の 손에

전국이 다 그렇지만 전라도에서도 일인이 매춘굴까지 점령을 했다. 조선 여자를 혈값에 사거나 빚값에 잡아다가 몸을 팔게 한다. 가련한 것이 조선 사람이요, 특히 여자들이다.

섬진강 일대의 은어는 특히 맛이 있다. 그런데 이 섬진강 은어도 일인 차지가 되고 말았다. 조선 사람이 잡는 것은 잡어들이다.

조선의 쌀이 품질 개량이 되어도 일본인이 먹고, 섬진강 은어가 별미라 해도 일본인이 먹는다. 조선 사람은 만주에서 사들인 좁쌀로 조밥을 지어먹고 섬진강의 잡어나 몇 마리 잡아다 먹을 뿐, 돈 될 것이면 무엇이냐 일본인 차지다. (전남도호 121쪽)

### (3)살아 있는 민족정신

곳곳에서 일본 사람이 날뛰고 있었지만 민족정신 또한 퍼렇게 살아 있었다. 몇 개의 기사를 살펴본다.

#### △江東에 檀君陵

평남 개천군은 철광 산지다. 그러나 철광은 모두 일본인의 손에 있다.

강동군 강동면 칠포리 아달산 밑에 단군능이 있다. 무덤 둘레가 410자이다. 조선 정종(\*정종이 아니라 정조인 듯) 병오(1786)때부터 봄 가을에 현감을 보내어 제사를 올렸는데, 그 뒤 제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능을 돌보는 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능 곁에 집이 늘고, 밭이 생겨 거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현 군수 김영필 씨가 부임한 뒤 이 일에 앞장서고 본군 유림의 힘을 모아 새로이 능에 담을 쌓고 문을 세워, 전과 같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단군의 능이 강동에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곳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 무덤을 단군릉으로 불러 왔고, 다른 곳에 단군릉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어느 군수가 이 무덤을 파 본 일이 있었는데, 무덤 안에 기묘한 옥함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묻었다 한다. (평남도호 89쪽)

#### △乙支文德 將軍의 석상

안주성 밖에 멀리 청천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이 있다. 여기를 을지공터라 부른다. 옛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을지공의 석상이 있었고, 사당이 있었다 한다. 백년 쯤 전에 이 석상이 땅에 묻히게 되고 사당은 흔적조차 없게 되었다. 비석이 있었는데 고집스런 사람이 자기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 놀다가 다쳤으며, 비석을 부러뜨려 언덕 앞 용담포에 던져버렸다.

안주에 안홍학교가 설립되고, 도산 안창호가 그곳에 왔다가 이 말을 듣고 학생들과 같이 을지공 터에서 석상을 찾아내고, 용담포에서 그 비석의 아랫부분을 찾아서 당시의 안홍학교이며 현재의 농(農)학교 뜰에 두었다고 하였다.

가서 보니 석상은 높이가 약 너 자, 나비가 한 자 넷 치 정도였다. 갑주를 입고 있는 상으로 비바람에 풍화되어 윤곽만 짐작될 뿐이다. 뒷면은 조각을 하지 않은 자연석이었다. 비석은 위쪽이 한 자 다섯 치 정도인데 하반부가 없으니 읽을 수가 없다.

슬프다, 을지공은 문무 어느 쪽으로 보나 공훈이 위대하거늘 더욱이 이 청천강 일대는 장군이 나라 위해 싸워 이긴 곳으로 높은 산과 굽이치는 강이 장군의 기풍을 말하거늘, 산천이 그대로이며 민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군의 비석 한 조각이 놓일 곳이 없다

나. (평남도호 82~84쪽)

#### △青年에 告하고 竝다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젊은이를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갖은 고초를 겪은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일시 해외로 몸을 피했던 사람도 있다. 이들 중에는 지방 청년회, 야학회 등을 일으켜 재력과 힘을 다 써버리고 백척간두에 서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비장한 투사도 있다. 이들이 사립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강습소를 차리기도 한다. 강습소는 마을마다 있다. 마을 청년들이 강사로 무료 봉사한다.

자기를 구제하고 조선이 구제될 목표를 찾으라.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방책을 생각하라. 진정한 동지를 구하라! 경남의 청년에게 고하고 싶다.(경남도호 73~74쪽)

#### △새로 생긴 만세 고개

기미년 민족 운동 때 강원도에서는 양양이 제일 격렬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서 몇 번째 손꼽을 만했다.

약 1주일 동안 계속 만세를 불렀는데, 검거된 자가 2천 명, 형을 받은 자가 1백여 명, 목숨을 잃은 자가 10여 명이며, 중상자가 40여 명에 이르렀다. 사상자가 난 곳이 현북면 기십문리 고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념하여 이 고개를 '만세 고개'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강원도호 92쪽)

#### △孟山은 獨立運動의 中心地

평남 맹산은 작은 고을이지만 기미 이래 독립 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당시 맹산 현병 분견소와 수비대에 의한 천도교인 445명 몰살 사건은 수원 사건과 아울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사였다. 당시 분견소에 들어갔던 천도교인 59명중 탈출한 사람이 1인, 시신이 되어 공동묘지까지 갔다가 살이 온 사람이 13명, 죽은 사람이 45명이었다. (평남도호 106쪽)

#### △만세 안 부른 安邊

안변은 콩의 특산지이다. 그러나 아무리 산읍이지만 너무나 한심하다. 전조선이 들끓어 품미하는 기미운동 당시에도 꿈쩍한 일이 없는 것을 보아서도 인심을 짐작할 수 있다. (함남도호② 92쪽)

청오는 만세 부르지 않은 고장을 무시했다. 만세를 안 부른 함남 안변을 비판한 기사였다.

#### △亡國은 醴泉의 슬픔

예천 청년회에서 군민의 지식을 계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 문제를 내고 그 답을 널리 모아서 제일 응답이 많은 것을 1등으로 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①제일 좋은 것, ②제일 미운 것, ③제일 우스운 것, ④제일 슬픈 것, ⑤제일 좋은 것 등의 문제에서 ①의 답은 '만혼자의 동방화축' ②는 '먹고 노는 이북자식' ③은 '장님 제

닭 잡아먹기' ④는 '나라 잃은 슬픔'이 제일 많았고 ⑤의 답은 '꾸어 온 남의 이갓돈'이었다. 그러나 ④번의 답을 그대로 발표할 수가 없어서 '늙은 과부의 외아들 죽음'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경북도호 49쪽)

#### △陝川の 國產獎勵 표어

합천 청년회에서는 조선 국산품 장려를 위해서 표어를 정했다. 그 표어가 '나간다'이다. 부득이 외국 물품을 살 때는 "나간다!"하고 소리치기로 했다. 조선의 돈이 일본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경남도호 49쪽)

#### △'倭債'라면 깜짝 놀라

경남 사람들은 일본인 고리대금업자로부터 꾸어 온 돈을 '왜채'라 한다. 조선 사람 사이에는 돈을 꾸어 쓰고 갚는 날짜를 미룰 수도 있지만 왜채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혹독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왜채'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란다.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부산, 통영 등지에 와서 돈놀이로 수만원의 재산을 모았다. (경상남도호 43쪽)

#### △<開關> 읽는 학생은 후데이 가꾸세이(不逞學生)

1923년 공주 사범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학생이 일본을 내지(內地)라 쓰지 않고 일본으로 써서 문제가 되었다. 시험 감독교원이라는 자가 그 학생을 몹시 나무라고 책보를 뒤지니 <개벽>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교원이 후데이 가꾸세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며 퇴장을 시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후데이(不逞)'는 불평불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로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조선 사람을 찍어서 하는 말이었다. (충남도호 135쪽)

청오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면서, <개벽>을 가지고 오지 말 것과 일본을 반드시 '내지'로 쓰라는 조항을 넣어서 학생모집 광고를 내는 것이 어떠냐고 비꼬았다.

#### △無窮花가 많은 洪城郡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나라꽃)이다. 세계에서 드문 이 식물이 조선에서 많이 피어서, 옛적부터 조선을 근역(權域; 무궁화가 피는 나라), 근원(權園; 무궁화 동산)이라 불러 왔다. (중략)

홍성에는 특히 무궁화가 많이 있다. 무궁화로 울타리도 하고, 정원도 꾸민다. 길가에 도 있고 밭둑에도 있다.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관가에나, 민가에 모두 있다.

사쿠라가 근역 팔도를 침입하여, 잠시 봄빛을 자랑하는 이 때에 특히 홍성에 무궁화가 많은 것의 기이한 일이다. 이제 홍성의 주요 시가지는 모두 일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다. 조양문(동문)에 즐비한 2층집과 비옥한 토지는 모두 일본 사람 소유다. 무궁화는 주인이 바뀐 것도 모르고 엄연히 홀로 서서 폭풍한설과 싸우며 봄빛을 기다린다. 나는 이 무궁화나무를 대할 때 감개가 무궁하다. (충남도호, 141~142쪽)

#### △上海 臨時政府라는 말

총독부의 검열에는 ‘한국’·‘대한제국’·‘삼일운동’·‘임시정부’ 등의 말이 기회에 저촉되어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청오는 평남 강서를 돌아본 답사기에서 묘한 방법으로 ‘임시정부’라는 말을 심었다.

조선 군인계에서 누구노라고 하면 알만한 김의선 군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의 차장 인가를 하다가 귀순민이 되었다더니 근래에 무슨 수가 또 생겼는지 비밀리에 집을 화려하게 짓고 약수놀이도 가끔 한단다. 원래 눈앞의 쾌락을 누리자고 돌아온 것이니 그것도 못하면 무엇을 할까? (평남도호 95쪽)

이것은 임시정부를 배반하고 총독 쪽으로 귀순한 자의 비굴함을 꼬집는 기사였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썩 좋은 방법이었다.

#### (4) 왜놈과 親日派

일본을 철저히 미워했던 청오는 전국을 취재하면서 일본인의 미운 행위를 닦치는 대로 공개하고 친일파를 비꼬았다. 몇 개 기사를 살펴본다.

#### △점점 늘어가는 倭服

청오는 평남을 둘러보고 다음과 같은 걱정을 했다.

평북에서는 독립군이 점점 늘어간다는데, 평남에서는 일본 옷이 점점 늘어간다. 군수, 기타 관청에 다니는 자들은 원래 여름이면 유까다 입기를 제 아비 제사에 도포 입듯이 의례히 입으니까 별로 말할 것도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 종종 보인다.

그리고 가뜩이나 도마에 오른 고기(俎上之肉)가 된 조선 사람이 더 한층 도마의 고기가 되고 싶은지 도마에 끈 달린 신(계다)을 곧잘 신는다. 그것은 기괴한 일. (평남도호 128쪽)

황해도를 총관한 글과 연백·웅진·송화를 취재한 글은 차상찬이 쓰고 나머지는 박달성이 썼다. 기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문장의 색깔에서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청오쪽 문장이 더 모질고 공격적이었다.

#### △교통요지는 일본인 차지

습성과 의복·풍속·언어가 다른, 이민족이 타지방에 옮겨지려면 먼저 교통과 운수 기관이 뚫려야 한다. 그래서 철도가 뚫리면 철도 연변의 땅은 무슨 수단으로든지 일본 사람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일본인이 교통요지를 다 점령해 왔고, 철도 교통이 뚫리는 곳

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경남도호 27쪽)

#### △떨어진 밥풀까지

백두산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고 압록강 물줄기까지 찾아 들어가 떨어진 밥알까지라도 죄다 주워 담으려하는 것이 일본과 일본인의 대(對) 조선 경제 경영책이다! 이득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을 놓치겠는가! (경남도호 22쪽)

#### △先何心이며 後何心인고?

홍천 군청에서는 군수 이외의 직원 일동의 명의로 북간도 동흥 중학교에 일금 6원 40전을 기부하기로 하고 수금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서무과장 하쿠모쿠라는 일본인 친구가 조선인 학교에 기부할 필요가 없다고 방맹이(방해)를 놓아, 모두 되돌려주었다..

아무리 섬나라 근성을 가진 좁은 소견이라도 모은 기부금을 되돌리게 한 것은 얼굴이 너무 뻔뻔하지 아니한가? 그리고도 도쿄 지진구제금은 세금처럼 강제 분배를 하고 독축을 몇 차례 했다 한다. 하쿠모쿠 씨는 왜, 조선인은 일본인의 지진재난에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하였나? (강원도호 76~77쪽)

#### △일본인은 고소도 못해

원주군을 답사하면서 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주군 일본인 재향군인회에서 1923년 2월에 노루 사냥을 하기 위해 유지 30여 명과 같이 판부면 관설리로 갔다. 그러다가 노루가 인가의 대문 앞으로 달아나는 데에도 총을 쏘았다. 노루는 잡았으나 집주인 신영균 씨의 열한 살 아들이 그 총에 죽었다.

신 씨는 소송을 내기 위해 고소장을 쓰러 대서소에 갔으나, 대서소에서 일본인 재향군인회가 두려워 고소장을 써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신 씨는 경찰서와 재판소에 구두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한 통속이라 고소를 수리해 주지 않았다.

범죄가 되든 안 되든, 경찰서나 법원에서는 당연히 고소를 수리해야 할 것인데도 일본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사건을 불문에 부친 것이었다. 적은 돈으로 신 씨를 달래어 사건을 해결했다니. 일본인 앞에서는 끔찍한 범죄도 쉬쉬한다. (강원도호 82~83쪽)

#### △사람이 개만 못하다니

함양읍 중국인 가게에서 기르는 개가 일본 사람의 개와 싸우다가 그 개를 물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이 개를 유사 광견병에 걸린 개라며 총으로 쏘아서 죽였다. 그 뒤 일본인의 개가 조선 아이를 물었을 때는 “개를 왜 놀라게 하였느냐!” 하며 아이만 나무라고, 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성현은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하였는데 사람과 개를 놓고도, 개보다 사람을 낮추어 보았으니. (경남도호 51쪽)

#### △분묘나 고치고 첩이나 거느리는 부자들

반드시 경상남도에만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현재는 부자의 황금시대다. 부자들은 총독 정치의 비호를 받으며 일본 사람이 가지고 남은 부스러기 혜택을 거머쥐고 부를 누리고 있다.

조선 말엽에는 부자의 재산이 비렁뱅이 양반과 토색질 벼슬아치의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총독정치는 그 대신, 반란진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재산가를 이용하고 있다. 오늘의 조선에서 제일 명망 높은 사람들이 이들이다.

도평의원, 학무위원, 면협의원, 적십자사원 같은 자리는 거의 이들의 입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배경이 든든하고 위세가 당당한 이들이 전날에 바라던 소원을 이루어졌다. 수십 수백 간의 집을 새로 짓고, 분묘를 고치고, 첩을 몇씩이나 두고, 심부름꾼을 사서 부린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얼마나 갈 것인가? (경남도호 69~70쪽)

#### △開城의 청년이 이 풀이라니

개성은 돈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들이 졸업하고 돌아오면 먼저 구식에 젖은 부인과 이혼하는 일이다. 그들이 출입하는 곳은 일본 사람들 모임인 '아마도 구락부' 등이다. 한탄할 일이다. 그대들의 부형들은 학회도 마련하고, 학교도 세우고 했다. 그대들은 무슨 사업을 하려는가? 우선 금전이 들지 않는, 점원 처우개선 운동이라도 일으켜 봄이 어떨지? (경기도호① 82쪽)

#### △손톱을 물어뜯는 賣國奴의 버릇

조선 문화의 기본조사 경기도호②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기사는 청오가 관상자 기명으로 쓴 「경성의 인물 백태」였다.

이 기사에서 청오가 불러 세운 사람은 의료계 12명에서 시작하여, 교육계의 교장 13명, 언론계의 사장이나 중역 18명, 금융 실업계의 인사 10명, 변호사 7명, 기타 저명 인사 8명, 노동계 2명, 부녀계 5명, 기생 4명, 친일 민족반역자 7명이었다.

이중 국적 1호 이완용은 을미사변 이후 1896년 아관파천 때는 친로파였다가 친일파로 전향하였다. 을사조약 때는 학부대신으로 있으면서 먼저 서명하여 을사5적의 한 사람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뒤 통감 이토오의 추천으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고, 1910년 내각의 책임자로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매국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공로로 일본정부의 백작이 되었고, 1920년에 후작이 되어 일본에 충성을 바쳐 왔다. 이항구는 이완용의 아들로 일본정부에서 남작의 작위를 받은 사람이었다.

청오는 국적 1위 이완용의 버릇을 이렇게 비꼬았다.

(전략) 마지막으로 귀족들을 좀 말하고 그만 두자. 이완용 후작의 손톱 물어뜯는 버릇은 이상하다. 매국하는 것도 그다지 용이치는 않은 모양이다. 합방 당시에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손톱을 물어뜯어서 피가 났다 한다.

새로 남작이 된 그의 아들 항구 군의 입 실룩거리는 것도 불만하고, (후략)

#### △여기저기에 李完用의 땅

황해도 수안에서 곡산으로 가는 길에 천곡면 여윤리 주막에서 점심을 시키고 시골 노인에게 정담을 했다. 노인이 “이곳에는 이완용의 토지가 많아요.”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10여년 전에 이완용이 많은 땅을 시들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세상을 개탄하고 어떤 사람은 이완용을 저주하고 있었다. (황해도호 93~94쪽)

#### △鐵原의 괴물 친일파 김낙형

또한 친일파의 아니꼬운 행동을 보아넘기는 청오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원에서 얻은 기사였다. 청오는 도지사 군수가 째째댄다는 이 친일 충성자의 기사에 「괴물 또 괴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철원에서 金洛炯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평북 연변에서 철원으로 이주하여 자칭 김 진사로 행세한다. 합방 전에는 북면 고암산 바위 위에 皇帝峰 석 자를 새겨놓고, 고암산을 황제봉이라 불렀다. 그리고 단을 皇壇이라 하고 고종대황제의 어진을 모셨다.

한참 어수룩하던 시대에 속임수로 궁내부의 입지(관청의 증명)를 내어 그 부근의 토지와 산림을 모두 차지하고 각 고을의 향교에 글을 보내어 많은 금전을 거두어들였다. 수십 간의 집을 크게 지어 놓고 살면서, 황제봉을 빙자하여 군민을 못살게 호령하였다. 그러던 그가 합방이 되자, 황제봉 이름을 고쳐 일본 왕을 받드는 천황봉이라 하였다. 그리고 고종대황제 어진을 치우고 일본의 메이지왕의 위패를 모셨다. 일본왕의 생일이면 경찰관 주재소의 순사, 그 밖의 관리를 청하여 참배를 하게하고, 술을 주되 어주라 한다.

만일 불참하면 신민의 도리가 아니라며 꾸짖는다. 도청이나 군청에서 그가 가진 산림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도지사 군수에게 호출장을 내기도 한다.

자기 집 문에 大關門이라 써 붙여놓고, 책상에는 케케묵은 명치 초년의 「육법전서」와 「산림법 규정」을 놓고 관리나 인민에게 특하면 불경죄니, 산림법 위반이니 하며 호통도 치고 고소도 한다.

유식자들은 미치광이로 인정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한다 하니까 꿈쩍을 못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괴물인가? (강원도호 88~89쪽)

#### △알뜰한 친일파

충남에서 ‘토박이(土倭)’라는 말을 듣는 군수가 있다. 천안 군수 윤헌구이다. 그는 알뜰한 일본 앞잡이다. 자기는 물론 가족까지 절대로 조선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자녀들까지 일본말만 하게 한다.

일본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면 몸 바쳐 극력 원조하고 조선인 사업에는 조금도 돕는 일이 없다. 일본에 대해 충성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 사촌형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사람을 시켜 때려서 받아내었다. 그리고 관청의 물건과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읍지를 좀 빌려달라 했더니 쉬 내어주지 않았다. 인쇄비 들까봐 군의 연혁을 알리는 인쇄물은 만들지도 않았다 한다. (충남도호 139쪽)

#### △이완용의 글씨를 새긴 일본군인 에도비

민중식은 보호조약 후 태황제 고종으로부터 충청도 의병대장의 밀명을 받아 1906년 (광무10) 2월에 일어나, 충청도 각지에서 동지를 규합하였다.

5월 17일 이곳 한 군아를 급습하여 군수를 사로잡고 19일에는 약 100명의 군사로 홍성을 점령하였다. 다시 500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경찰대, 관병, 일본 군속과 싸워 자못 기세를 얻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일본군이 보낸 보병 2개 중대와 기병 1개 소대를 맞아 싸워 31일에 성을 잃고 말았다. 의병 전사자가 약 80명, 잡힌 자가 150명이었고, 구식 대포 75문, 화승총 250자루, 신식 소총 10자루를 빼앗겼다.

이후 홍성의 남산 공원에는 높이 몇 10척이나 되는 비석이 숲속에 높이 솟게 되었다. 이름이 '애도비'이다. 그 비는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민중식이 일으킨 의병에게 목숨을 잃은 일본 헌병과 일본 경찰을 애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글씨는 이완용이 쓰고 비문은 한때 친일을 했던 김윤식이 지었다 한다. 비에 새겨진 글에는 별별 기관의 구절이 있다. 한일 합방에 공이 큰 문장 명필의 이름도 이 비와 함께 기념될 것이다. 그리고 제나라 위해 의병이 되었다가 폭도로 몰려 참살을 당한 동포의 원혼을 어떤 명목으로 상대하려는지, 지하의 운양(김윤식의 호)에게 묻고 싶다. (충남도호 126쪽, 139쪽)

#### △일본인 상등병의 기념비

경기도 가평에는 일본 상등병(끝에서 세 번째의 사병) 우에야마의 기념비가 있다. 우에야마는 1913년 가평 헌병 파견소에 있으면서 의병장 연기우를 추격하다가 의병의 총알에 죽었다.

이 비석은 가평의 관민 유지들이 억지로 돈을 모아서 세운 것이다. 조선의 충신도 많은데 의병을 쫓다가 죽은 일본 졸병을 기념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아무리 작은 고장이라도 충신이 있는 법이다. 올미년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잡혀 참수를 당한 신재회는 가평 출신의 충신이다. 가평 출신 또 하나의 충신 정문위는 병신년(1896) 의병으로 활동하던 분으로 파수를 보다가 단신으로 관군과 싸웠다. 그가 맞은 총 소리를 듣고 의병 5백 명이 모두 몸을 피할 수 있었다. 나 하나를 죽여 5백 명을 살린 것이다.

그밖에도 의병 활동하다가 옥에서 죽은 정재홍, 3·1운동 때 옥살이를 하다가 옥에서 나와 그 여독으로 병사한 청년 최종화 등이 가평 출신의 충신이다. (경기도호① 111쪽)

#### (5)경장한 총독의 행렬

청오는 1924년 10월 4일 청오는 먼저 함경남도 취재를 나선 춘파 박달성으로부터 함흥으로 와달라는 급전을 받았다. 청오는 행장을 꾸려 가지고 나섰다. 경성역(서울역)에서 경원선을 타고 용산·서빙고·왕십리·청량리·의정부·동두천을 거쳐 철원에서 개벽사 관동지사장을 만난다. 지사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쉰다. 비 오는 날이었다. 그는 기차 안에서 이런 한탄을 한다.

시름없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오고 보니 차 안이 한층 더 쓸쓸하다. 18년 간이나 가정

의 안락을 보지 못하고 동분서주하여 객창생활을 하는 나다. 언제나 고적하지만 오늘은 새삼스럽게 적적인 생각이 더 난다. (함남도호② 94쪽)

이튿날 철원역에서 평강을 거쳐 금강산으로 가는 총독 일행과 평강까지 경원선을 같이 타게 된다. 청오는 총독 일행을 형편없이 비꼬아서 소감을 적었다. 청오의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철원역은 야단법석이다. 철원에 있는 칼치장사(칼을 찬 경찰관)는 총 출동하여, 비상선을 늘이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노려본다. 관청 출입이나 하는 철원 유지, 신사 나 우리들은 다 나왔다.

참 굉장하다. 나는 정신이 멍해서 대합실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조금 있다가 함흥행 열차가 뿅 소리를 지르면서 온다. 뒷꽁무니에 임시로 단 특등실에서 몸이 깎지덩이 같고 머리가 목화밭 같은 총독이 나온다. 군수 윤희성 군을 위시하여 영접 나온 사람들의 허리가 일시에 부러지고, 코가 땅 내를 맞는다. 칼치장사 쪽에서는 “척” “쩍” 하며 손들이 모두 모자에 가 붙는다.

내가 잡담 제하고, 2등차실로 들어가니, 그 안에도 총독부 공기가 충만하다. 관리는 물론이고, 어용지 수행기자, 숙명여학교의 여선생까지 있다. 말뚝 같은 여송연, 말 오줌 같은 위스키를 막 던지면서 ‘공고상(金剛山)’이니, ‘헤이고(平崗)’가 어머니 하고 떠든다. 그러자 차가 떠난다. (중략)

월정역을 지나 평강을 이리니, 그곳이 총독이 하차할 곳인 듯, 경계가 철원보다 삼엄하다. 영접 온 사람도 펴 많다. 자동차 인력거가 역두에 뿅뿅하고다. 평강의 남녀노소, 학생까지 나왔다. 앓은뱅이와 송장만 아니온 모양이다. 또, 최남선의 쇄동모자가 원경으로 보인다. (그도 금강산행인 듯)

총독 일행이 다 내리고 보니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야, 시간의 힘은 참 무서운 것이다. 삼시간에 차 안의 총독부 세력을 다 쫓아버렸구나.’하고, 나는 도시락과 차를 사가지고 점심을 먹었다. (함남도호② 95~96쪽)

## (6)우리가 이겨 온 역사

우리가 이겨 온 역사를 놓칠 리 없다. 청오는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에서 승리의 유적을 찾아 내세운다.

### △전쟁역사로 본 충남

임진왜란 때 왜장 고니시는 공주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크게 패한다. 그곳에 기념비가 있다. 특히 기록할만한 것은 직산의 소사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서울 이남에서 연합군과 왜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가장 격렬한 전쟁이었다.

왜군이 이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실로 치명적인 것이었다. 왜군은 명군이 잠복해 있는 것을 모르고 소사로 왔는데, 연합군은 왜군이 100보 앞에 왔을 때에야 일제히 공격을 개시, 나비처럼 날아서 왜군에게 돌진하였다.

왜군은 급습을 하는 이들이 귀신인지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들이 허둥대다가 옮겨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천과 청주 쪽으로 달아났다. 왜병의 시체가 들에 널려 있고 피가 내를 이루었다. 이 싸움이 임진왜란 최후의 육전이었다. (충남도호 121~122쪽)

청오는 이처럼 왜란 때의 큰 승리가 충남에서 있었음을 적고, 갑오 동학란의 중심지가 되었던 충남의 역사 이야기를 곁들였다. 난중에 관군과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동학군이 태안에서만 7천 명, 충남 전체에서 약 7만 명 동학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적었다.

청일전쟁 또한, 갑오년(1894)년 6월에 충남 아산만에서 시작되어 성환에서 크게 교전을 벌였고, 애매한 민간인이 다치고 죽었다.

청오는 이리저리 일본 사람과 왜병에게 당했으니 충남 도민은 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라는 뜻에서 적은 글이었다.

#### △여수는 충무공의 유적지

전남은 199만 8천의 인구 중에 일본인이 2만9천 명이며 섬이 많고 농업·공업·수산업이 성하다. 화순군 동북은 인삼 근원지이며, 담양은 죽세공의 명산지이다. 순천은 산이 아름답고, 광양 사람은 이재에 밝으며, 벌교라 알려진 보성은 주막이 한 집도 없다. 검소 절약하는 고장이다. 모시와 김과 은어는 장흥에서 나고, 굴비의 고장 영암은 참빛의 명산지이기도 하다. 연산 3백만 개의 참빛을 생산한다.

여기서 청오는 임진왜란 때에 전라 좌수영이던 여수를 크게 내세웠다. 충무공이 세운 진남관과 이 충무공의 타루비(墮淚碑)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타루비란 읽어서 눈물이 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이 충무공이 비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 원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진남관은 객사로 쓰이다가 현재 보통학교 교사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학교 건물로서는 남선에서 제일 크다고 했다. (전남도호 108~110쪽)

#### △만인총 앞에는 만인의 눈물이

선조 정유재란 때에 명나라 장수 양원의 남원성 참패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그때 방어사 오용정, 구례 현감 이원춘, 충주군 이신방 별장 신호, 조방장 김경로, 부사 임현, 병사(兵使) 이복남, 접대사 정기원 등 여러 충신이 한꺼번에 목숨을 바치고, 조선과 명나라 군사 5천 명이 전사하였다.

남원 성내 용성관 뒤에 여덟 충신을 기린 충렬사가 있고, 북문 안, 논 가운데에 만인총이라는 큰 무덤이 있다. 일명 충렬묘라 하는데 동서가 4간(약 8.3미터), 남북이 6간(약 11미터) 되는 둥근 돌무덤이다.

금성산 바깥에는 중봉 조현 등을 묻은 칠백의사총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무덤은 모두

지키는 사람이 없고 슬픈 풍우 중에 가을 풀만 황량하다. 비록 천만년 세월이 지나도  
우리 조선사람된 자가 어찌 그 한이 꺼지며 눈물이 없을 소냐! (전북도호 111쪽)

청오는 전북도호의 기사를 마치면서 남원의 만인총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자고  
호소하였다.

#### △충절의 세 여인

桂月香은 선조 때 평양 제일의 기생으로 월산이라고도 불리었다. 왜란이 일어나 평양  
성이 함락되면서 월향은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副將 小西飛에게 포로가 되었다. 계월  
향은 형장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기회를 보아 적장을 죽이고 죽기로 마음먹었  
다.

어느 날, 전부터 알고 지내던 평양 순별초관 金景瑞 장군이 왜장이 머무는 성 밖에서  
기마 연습하는 것을 보고, 연을 날려서 김경서 장군에게 정보와 계획을 전했다.

왜군 진중에 큰 잔치가 있던 어느 날 밤이었다. 월향이 소서비에게 많은 술을 먹여서  
취해 떨어지게 해놓았을 때 김경서가 몰래 적진에 들어와 소서비의 목을 베었다. 그러  
나 두 사람이 같이 적진 밖으로 달아날 수는 없었다. 월향은 자기를 죽여줄 것을 김경  
서에게 부탁하여 나라 위해 몸을 바쳤다. 소서비는 목이 달아나면서도 칼을 들고 기둥  
을 쳤는데, 대동관(大同館) 기둥에 그 칼자국이 아직 남아 있다. 현종 때 충절의 여인  
계월향을 기리는 사당 의열사와 의열비가 세워졌다.

그 뒤 임진왜란 때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친 또 하나의 여인, 옥개의 영위를 모셨다. 그  
리고 양요 때 전사한 어재연 장군 형제의 시신을 업고 나온 여인 채란의 영위를 같이  
모셨다. 한 사당에 같이 모신 셋 여인은 모두 기생 출신이었지만 나라 위해 목숨을 아  
끼지 않았다. (평남도호 77~78쪽)

#### △왜란 때의 승전가

창녕군 영산에서는 즐다리기나 씨름을 해서 이겼을 때 이긴 편에서 “오왜 승전아, 오  
왜 승전아!” 하며 외치고 다닌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망우당 광재우 장군이 창녕 화왕산성에서 왜병을 크게 무찌르고  
노래하던 승전가라 한다. ‘오왜(鑿倭)’는 ‘왜군을 무찔렀다’는 뜻이다. (경남도호 49쪽)

#### △민요에도 결의가

차상찬은 경북 취재에서 얻은 민요 12편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는 항왜의 결의가  
담긴 것이 있었다. 그 한 편을 소개하면 이렇다.

#### <문경 민요>

문경 새재 박달나무

북 바디집으로 다 나간다. (줄임)

할미성 꼭대기 진을 치고

왜병정 오기만 기다린다. (경북도호 29쪽)

### △아이들 놀이에도 입란 때의 흔적

대구와 그 가까운 지방의 남녀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 할 때에 「꽤지나칭칭 나네」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에 시작된 노래로서 ‘왜장 청정 난리’라는 뜻이다. (경북도호 41쪽)

## (7) 나는 강원도 사람

청오 차상찬은 출생지인 강원도를 여러 날에 걸쳐 취재하여 <개벽>42호(1923년 송년호)에 ‘강원도호’를 엮었다.

나는 강원도 사람이다. 강원도에서 뼈가 굵었다. 역대 나의 조상이 여기서 살았고, 또한 내 자손이 여기서 몇 대를 더 살지도 모른다. 그래서 강원도를 사랑한다. 본사에 나보다 유능한 이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가게된 것은 이런 옛 인연 때문이다. (강원도호 108쪽)

그는 「조선의 처녀지인 관동지역」이라는 큰 제목을 두고 강원도의 연혁, 교육과 종교의 현황, 강원도의 산업, 영서·영동의 현황과 고적 전설, 강원도의 민요, 자작 한시, 태봉왕 궁예, 의병대장 민공호, 강원도를 돌아본 소감 등으로 나누어 기사를 다루었다. 특집 말미에 강원도의 사랑을 곁들였는데 그 다섯 가지가 이렇다.

제1에 강원도는 산수가 좋다.

제2에 강원도는 산림이 무성하다.

제3에 강원도는 인심이 순박하다.

제4에 강원도 사람은 건강하다.

제5에 강원도는 빈부의 차가 없다. (강원도호 113쪽)

이러한 강원도는 예·맥의 옛땅으로 산맥을 경계로 하여 울진 삼척 강릉 양양 고성 통천을 영동 6군,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양구 화천 인제 회양 금화 이천 평강 철원을 영서 15군이라 한다. 영동은 산과 바다의 나라요, 영서는 산과 들의 나라이다. 1923년 현재 전체 인구가 18만 6천 187명인 강원도에 일본인 6797명이었다. 어느 지역에서나 소수의 일본인이 경제적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어서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에다가 청오는 강원도 사람이 순박하다 보니 언제나 손해만 본다는 사실을 비유하여 ‘강원도 사람은 동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우화를 만들었다. 강원도 사람이 외래인 등쌀에 손해 보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일본 사람이 남조선으로 밀려들자 남조선 사람은 집과 땅을 다 빼앗기고 북간도로 갔다. 강원도에는 일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나자, 황해도·평안도 사람이 난리를 피해서 모두 강원도로 몰려 왔다. 그 위에 서울과 개성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강원도가 어수룩하다며 모두 이리로 모여 온다.

강원도 각 군청 소재지의 여관과 상점은 모두 개성 아니면 서울 사람 것이 되었다. 장사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 강원도로 몰려온다. 이리하여 요즈음 강원도에는, '강원도 사람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 동해 바다로 밖에 갈 곳이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말이며 기막히는 말이나!

타민족에게 정복되는 것이야 물론 안 되지만, 동족에게 정복되는 것도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강원도호 110쪽)

### △홍천군의 잠재력

군별 지세와 인구나 교육 현황과 산업과 명승고적과 산세를 이야기하면서 홍천군 대목에 와서 일본인의 심사를 한번 짚어낸다.

청오는 홍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 갑오년 민중봉기 때에 서석면, 풍암면에서 죄 없는 동학교도 3백여 명이 춘천 관군의 손에 학살을 당하고, 기미년 민족운동 때에도 수십 명 동포가 일본 헌병의 총에 죽거나 다쳤다. 특히 천도교인은 이곳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횡성 가서 밝은 척 말라

관동 속담에 횡성 가서 밝은 척 말라고 했다. 횡성이야말로 참 밝다. 산수도 깨끗하고 인물들도 말쑥하다. 횡성 사람은 특히 상업에 눈이 밝다. 강원도의 상권이 모두 일인이 아니면 중국인의 손에 들어갔는데, 유독 횡성은 조선 사람이 상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횡성은 제2의 개성이라 한다.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앞서 가고 있고, 사상계도 건전하다.

강원도 청년회가 모두 관청 부속 사업이 되었지만 횡성 청년회는 민간의 힘으로 조직되었고 잠재력이 있다. 특히 타군에는 없는 소년회가 생겨 갱생하려는 참된 운동을 하고 있다.

## 7. 이어지는 수난

### (1)조선의 자랑 특집호

「조선문화의 기본조사」가 끝난 <개벽>지에서는 창간 5주년 기념호로 「조선의 자랑 특집」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통권 61호, 1925년의 7월호였다.

식민지 통치를 받은 조선 사람들은 자신과 겨레를 낮추어 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우리의 자량을 심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량이 많았다. 그것은 전국을 답사해본 데서 얻은 해답이었다.

조선 민족의 우월성에 대하여 소춘 김기전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천도교인 권덕규는 조선 사람에 대한 자량을 쓰기로 하고, 고구려의 기상에 대한 글을 사학자 이병도에게 원고를 청탁하였다. 그밖에 조선의 예술, 조선의산업과 그밖의 여러 가지 자량에 대한 글을 하 여러 명사들에게 부탁하고, 조선에 살면서 느낀 조선의 자량을 외국인 몇 사람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차상찬은 3년 동안 조선 13도를 돌아본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지리적 자량을 쓰기로 하였다.

이 특집에서는 우리 민족과 역사의 우월성을 내세워 일본의 침략이 부당함을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벽>61호는 이렇게 하고도 총독부경무국으로부터 삭제처분을 당하지 않았다.

은통 우리의 자량으로 장식된 「조선의 자량호」는 대성공이었다. 독자 모두에게 조선인의 긍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좋았다.

#### △하늘이 배운 조선의 지리

(전략) 조선민족은 군사력이 강할 때, 중국대륙을 국토로 하여 태평을 누렸다. 기후가 온화하여 인간 생활에 맞고 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갖추었다. 곳곳에 좋은 항구가 있고 압록 대동 한강 낙동 두만 금강 임진강 등 12대강이 흐르는데 유역마다 넓은 들이 있고, 쌀농사와 목축에 알맞다.

백두 두류 금강 오대 낭림 삼각 태백 지리 한라산 등 명산이 솟아 있는데 그중 금강산은 절경이어서 중국인이 고구려에 태어나 금강산 한번 보는 것이 소원(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어족이 또한 풍부하고 식물은 종류가 많고, 산새와 산짐승의 종류가 또한 많다. 산중영웅인 호랑이가 또한 자량이다.

조선은 이와 같이 천연의 지리가 양호한 고로 인문이 또한 일찍이 발달하였으므로 삼국시대는 소위 조선의 황금시대로 천문학 미술 음악 정치학 법률 병학 등이 모두 발달하였다. 이조에 이르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음문자가 발명되고, 세계에서 제일 앞서서 철제활자가 발명되었다. 철갑선·비격진천뢰 등이 발명되고, 최근에는 다른 사상에 견줄 수 없는 천도교가 이루어졌다. (하략)

이 한 편의 글에서 청오 차상찬의 조국애 민족애를 읽을 수 있다. 그는 민족의 긍지를 가진 자기 생각으로 남을 일깨우려고 애썼다.

청오의 민족적 자부심은 한 귀의 시편이나 한 구절의 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러한 좋은 국토와 빛나는 역사를 두고 어찌서 나라를 잃고 남의 노예가 되었느냐고 반문하며 나라를 찾자고 소리친 것이었다.

## (2)밖에 있는 독립지사

<개벽>지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었고 경무부 도서관에서는 자매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검열을 하고 있었다.

그 동안 통권 6호(1920년 송년호)는 유진희의 논문이 문제가 되어 경성 지방법원에서 50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으며, 발매금지, 압수는 자주 있는 일이었다.

1925년에 와서 <개벽>지 편집국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를 선정하여 소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해외의 독립투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당자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진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 해의 6월에야 필자를 정해서 원고를 청탁하였다. 대상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李東輝,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던 徐載弼, 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냈던 柳東說,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던 李承晚,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을 지낸 金奎植, 해외에서 국민군단을 창설하였던 盧伯麟,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차린 李始榮, 독립운동 단체 흥사단을 이끄는 安昌浩, 임시정부 대통령서리를 지낸 李東寧,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있는 朴殷植,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낸 申采浩 외 1명으로 모두 12인이었다.

독립지사는 많았으나 필자가 맞지 않아 12인에서 그친 것이었다. 편집계획이 서자 필자에게 원고를 부탁하였다. 그중 이광수가 편지 형식으로 쓴 「도산 안창호 선생께」는 도산을 민족의 스승으로 받들고 그의 가르침을 온 겨레가 따라야 한다는 결의가 보이는 글이었다.

그런데 납본을 하고 이튿날, 경무국 도서관 사람들과 형사들이 경운동으로 달려왔다. <개벽>의 발행정지 처분이 내린 것이었다. 전남지방으로 출장을 나간 차상찬을 불러 올린 것이 이때였다.

이리하여 <개벽>62호, 1925년 8월호 인쇄본은 모조리 압수당하고 임시호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발행정지 처분은 이후 발행정지가 해제 될 때까지 잡지를 찍지 못하는 조치였다. 개벽사는 비통한 생각으로 발행정지 해제만 기다려야 했다. 두 달 반이 된 이 해의 10월 15일에야 발행정지 처분이 해제되어, 두 달 건너 11월에야 63호를 내게 되었다.

## 8. 황제가 승하했지만

1925년 11월에 63호를 내게 된 <개벽>지는 66호에 (1926년 2월 1일 발행)에서 별  
표 기명의 「중산계급의 장래」 일부분과 이기영의 소설 「농부 정도령」의 전문이 기휘  
에 걸려 발매금지를 당한다.

67호(1926년 3월 1일 발행)에는 차상찬의 일기자(一記者) 기명으로 쓴 시평(時評)  
난의 기사 「민족주의자와 제휴」가 기휘에 걸려 발매금지 처분을 당한다. 호외로 낸  
잡지에 독자에게 사과하는 글을 실었다. 판권에는 3월 1일이 찍혔지만 실제로는 3월 중  
순 경에야 호외를 낼 수 있었다.

4월에 만든 5월호를 검열에 넘기고 이제 6월호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  
을 때였다. 4월 25일에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  
라를 잃은 지 16년 만에 한을 품은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순종은 그 동안 황제폐하의  
존칭 대신 이왕전하라 불리면서 창덕궁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마친 것이었다.

나라 안이 술렁대었다. 일본 당국은 고종황제의 국상 때처럼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국상에 앞서서 만세 단속을 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총  
독부의 생각이었다.

5월호는 이미 검열에 넘긴 때여서 개벽사는 6월호에 <개벽>지와 <신여성>,  
<어린이>등 자매지에 황제 추모호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의 단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만일 잡지나 신문에서 추모 특집을 꾸미고 국민의 분노를  
부추킨다면 3.1만세 때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개벽사는 <개벽>지 5월호 안에 <신여성>5월호를 알리는 광고를 내  
면서 그 끝에 순종의 어진을 신고, <승하하옵신 전 한국 율회 황제 창덕궁 전하>라  
는 사진 설명만 달았다. 어진 만은 황제의 제복에 면류관을 쓴 모습이였다. 다른 기사  
는 전혀 신지 못하였다. 언론 기관으로서 여기에 더 통분한 일이 없었다.

### (1)5백년을 돌이켜보며

마지막 황제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편집국장 차상찬은 6월호는 조선 왕조 5백년을  
돌이켜보는 특집을하기로 계획하였다. 제목을 「회고 5백년 조선」이라 하였다. 역사  
지식이 있는 차상찬이 이 특집을 혼자 맡아서 약 60쪽에 이르는 원고를 완성하느라  
밤을 새웠다.

여태까지 여러 지면에 쓴 역사 기사를 참고하고 자료를 찾고 하여 조선 5백년 역사  
를 18개 소제목에 나누어 기록하였다. 다행히도 이 60호는 검열에 걸리지 않았다.

<회고 5백년 조선>

△만사 초창(初創)인 태조조

△개혁기에 든 정종조

△정돈 시대인 태종조  
 △눈물 많고 한 많았던 문종, 단종조  
 △천하태평 예종, 성종조  
 △사화가 이어진 중종, 명종조  
 △대북의 천하 광해조  
 △북벌론이 고조되었던 효종조  
 △유신으로 이름 지을 정조, 영조조  
 △국사에 어려움 많던 광무 시대

△황금시대 세종조  
 △문무가 고루 성했던 세조조  
 △암흑시대 연산조  
 △당론과 병화에 고민한 선조조  
 △내란 외환이 같이 이른 인조 시대  
 △당론이 치열했던 현종, 숙종, 경종조  
 △외척이 날뛰던 순종, 헌종, 철종조  
 △아! 27대 융희조

제목만 보아도 청오가 그 시대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 5백년 역사의 기록을 끝내면서 한숨을 쉬었다.

청오 차상찬은 이 밖에 「사화와 당쟁」, 「이 태조의 건국 백화」, 「5백년간의 혁명운동」, 「5백년간 3대 외란」, 「5백년의 정감록」, 「조선 연대 일람」 등 역사를 여러 가지 필명으로 집필하여 주논문 뒤에 곁들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할 마지막 황제의 대목은 울분을 참아가며 적었다.

아(噫) 27대 융희조!

융희 황제는 조선 최후의 황제였다. 광무 10년(융희 원년) 7월 18일에 위를 받아 8월 13일에 연호를 융희라 하고, 겨우 4년 되는 경술 8월 22일에 합병조약이 체결되어 같은 달 29일에 나라를 이양하는 조서를 내렸다. 황제의 생애와 합병조약의 성립 경위는 일반이 이미 잘 기억하는 바인즉 새삼스러이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시 조약문을 잠깐 소개하고 붓을 던진다.

차상찬은 여러 날 밤을 새운 끝에 기사를 끝내고 붓을 던진다는 말로 마침표를 찍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마지막 황제 순종을 보내는 슬픔뿐이 아니었다. 조선 5백년이 한탄의 역사였기 때문이었다.

「회고 오백년 조선」 특집원고를 끝내고 한 번 더 편집회의를 가졌다. 특집은 인기를 끝만치 힘을 기울인 기사였다. 그런데 대구의 시인 이상화가 시 한 편을 보내어 왔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목부터 식민지 백성을 일깨우는 저항의 시였다.

“지금 국상 중이어서 저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괜찮을까?”

작품을 읽어본 간부들 말이였다.

“이상화 씨는 3.1운동 때 대구에서 학생 시위를 지휘했던 사람이요. 이런 시를 쓸 만한 사람이지요. 이 시를 실지 않는다면 <개벽>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빼앗긴 나

라의 오백년 역사에는 이 시가 안성맞춤이구먼. 아주 썩 잘 됐어.”

편집국장 차상찬의 말은 단호했다. 그러자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이상화의 시가 발표되었다.

우리의 땅과 아름다운 봄의 자연까지 빼앗아 간 일본에 대한 울분을 노래한 이 시를 일본 당국이 그냥 들 리는 없었다.

이리하여 이 호의 <개벽>도 시의 전문을 삭제 당하였고, 인쇄된 잡지는 모두 압수 당하였다.

## (2) 예비검거 유치장살이

4월 25일 승하한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인산일이 6월 10일로 결정되었다. 인산일이 알려지자 나라 안이 슬렁대면서 고종황제의 국상 때처럼 만세 운동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황제가 승하한 사흘 뒤인 28일 오후 한시에 금호문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인 회사에서 막일을 하던 송학선이 안중근의 의거에 감화를 받고 3년 전부터 총독 사이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순종의 국상에 총독이 문상하러 오는 때를 거사의 기회로 잡고 창덕궁 금호문 앞 애도하는 인파 속에서 칼을 품에 감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문상을 온 경성부 의원 다카야마와 사토 등 일본인 고관이 번쩍이는 관용차를 타고 창덕궁 금호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 놈이 총독이구나!”

송학선은 품었던 칼을 빼어,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총독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비록 총독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인 고관을 죽였으니 통쾌한 일이었다. 송학선 의사는 이듬해인 192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35살의 젊은 나이로 장렬한 순국을 했다.

일본 경찰의 철통같은 경계망 속에서도 산발적으로 청년과 학생들이 인산일인 6월 10일에 만세운동을 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6월 6일에 그 조직의 일부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다. 천도교와 몇 개 단체에서 태극기와 격문을 만든다는 정보를 일본 경찰이 알아낸 것이었다.

이날 오후 경찰부와 종로서 형사 다섯 사람이 천도교 대교당으로 들이닥쳤다. 시위 때에 뿌릴 격문과 나누어 줄 태극기가 나온 것이었다. 태극기 수십 봉치와 격문이 1만 장이었다.

형사들은 태극기와 격문 모두를 압수해 갔다. 그리고 천도교회 간부 전원과 개벽사 사원과 그밖의 관계자 70명을 검거하여 유치장으로 끌고 갔다. 시위에 가담하지 못하게 예비구속을 한 것이었다. 현행범은 아니었지만 시위를 미리 막자는 것이었다. 편

집국장 차상찬도 편집국 여러 동료들과 감방에 끌려가 갇혔다.

6월 10일 인산일에는 전 경찰이 동원되고, 조선군 사령부의 일본 군인을 풀어 삼엄한 경계를 폈다.

그래도 시위가 일어났다. 중앙 고등보통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국장행렬에 뛰어들어 태극기를 흔들고 격문을 뿌리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밖의 여러 학생,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이날 일본 경찰과 군인이 이처럼 경계를 폈지만 서울에서 시위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람이 200명에 이르렀고 전국에서 1천여 명이 감옥에 끌려갔다.

<개벽> 71호(1926년 7월호, 창간 6주년 기념호)에 차상찬은 국상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한데 엮어 「국장 전후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제목에 일기자라는 기명으로 기사를 정리하였다. 차상찬은 사건 기사 끝에 이런 말을 곁들였다.

요컨대 이번 국장을 전후로 조선인을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소극적으로는 추억과 감상, 적극적으로는 민족 감정의 고취와 이에 상응한 직접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심(心)의 싹인 청년 학생을 통해서 나타났다. 안팎으로 호응 세력이 적어, 이 운동이 처음부터 전국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현재 조선인의 심정과 앞으로 닥칠 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춘 김기전은 예비 검거 1주일 동안 개벽사 직원들이 겪은 수난을 「국장 전후의 유치장 생활 잡기」라는 제하에 불명자(不逞者)라는 기명으로 <개벽>71호(1926년 7월호)에 정리하였다. 모두들 '7월호는 팬잡아야하는데.' 하는 생각뿐이었다.

## 9. 민족잡지의 마지막 호

1926년 7월호는 창간 6주년 기념호였다. 이 기념호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6.10만세 사건 기사 외에 전호의 특집에 이은 기사로 신간회 총무 안재홍의 「한양조 5백년 총평」을 실었다. 차상찬은 조선왕조의 국력을 약화시킨 당쟁을 비판하는 기사 「사화와 당쟁」을 집필하였다.

여기에 식민지 백성 조선인의 몸부림으로 「근세 식민지 정책의 종막」이라는 외고를 실었다. 이제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이 종막을 고해가니 일본도 조선을 내놓으라는 암묵적인 글이었다.

그런데 이 외고가 기회에 저촉되었다. 문제의 기사 대부분을 교체하고, 춘파 박달성의 「서행잡기」 기사 일부를 바꾸라며 7월호에도 발매금지 처분이 내린 것이었다.

편집국에서는 기사를 바꾸어 임시호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

1926년 8월호는 박춘우의 논문 「모스크바에 새로 열린 국제 농촌학원」을 실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기회에 걸렸다. 총독부 당국은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개벽>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는 독립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은 이 기사를 트집 잡아 잡지를 없애는 편이 명분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드디어 발행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일본 경찰은 인쇄된 잡지를 모두 거두어 수레에 싣고 종로경찰서 뒷마당으로 갔다. 거기에 작두를 구해다 놓고 잡지를 썰어서 사람들이 맞추어 읽지도 못하게 하여 폐지로 버렸다. 민족 잡지 <개벽>지의 슬픈 종막이었다.

당시의 개벽사 주요 간부는 이돈화 차상찬 김기전 박달성 방정환 박영희 등이었다. 모두가 탈기가 되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편집국장 차상찬은 수건을 풀어 머리에 걸끈 동여매었다.

“여러분! <개벽>은 죽었다 해도 다른 잡지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힘을 냅시다!”

그는 백노지 전지에다 ‘혁명투쟁 개벽 7년, 8월 1일 오후 4시 환원 (革命鬪爭 開闢 七年 八月 壹日 午後 四時 還元)’이라 써서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사원 두 사람에게 들게 하였다. 독립투쟁을 한 <개벽>지가 7년째인 8월 1일 오후 4시에 순국을 했다는 뜻이었다.

사원 일동이 플래카드 앞에 모였다. 그리고 머리를 묶은 편집국장의 선창에 따라 “개벽은 살아 있다!”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재기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보인 이는 역시편집국장 차상찬이었다.

<개벽>지는 일제 치하의 암흑기에 있어서 민족혼의 화신이었다. 일제 36년을 통해 <개벽>지만큼 언론으로써 일제와 강하게 투쟁한 예가 없었다. <개벽>이 내세운 투쟁은 독립운동이었다. 그 중심에 청오 차상찬이 영웅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 10.<별건곤>과 그 이후

1926년 8월에 <개벽>이 72호로 강제 폐간된 이후 11월 1일에<別乾坤>이 창간되었다. 개벽사에서<婦人>·<어린이>·<學生>·<新女性>을 이은 다섯 번째의 자

매지였고 <개벽>을 합치면 여섯 번째 발행하는 잡지였다. 이 잡지에 쏟은 청오의 정성이 또한 대단했다. 이후의 잡지는 모두 차상찬의 이름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다가 1931년 3월1일에는 일곱 번째의 잡지<擘星>이 발행된다. <擘星>이 중단되던 1932년 <혜성>지는 1931년 4월호로 끝나고 그 후신으로<第1線>이 나온다. <新經濟>는 개벽사가 마지막으로 발행한 잡지였다. 1932년 5월에 창간되었다.

## 11. <개벽> 복간호, 마지막 몸부림

1920년 개벽사가 창사된 이래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 겪은 시련을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다. 그 모체인 <개벽>지가 1926년 8월에 통권 72호를 마지막으로 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지만, 그 동안 여덟 자매지를 내면서 개벽사의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경영은 갈수록 난항에 부딪치게 된다. 그 첫째가 한글이 쓸모없도록 하는 총독부의 교육정책 때문이었다.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모든 관청과 학교의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한글은 언문, 우리말을 조선어라 하여 초등 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 흉내 삼아 가르치다가 일제 말년에는 그것마저 교과에서 없애버리고 학교 안에서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한글 잡지의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쟁자가 생긴 것이 원인이 되었다. 특히 자본이 많은 큰 신문사에서 자매지로 월간지를 내어 개벽사의 자매지들과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개벽사는 자금이 쪼들리게 되었고, 직원의 급료를 제때에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방정환 때부터 그러했다. 차상찬이 개벽사의 총책을 맡은 뒤에도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1933년 3월에 <혜성>의 후신인 <제일선>이 눈물을 머금고 종간호를 내었다. 1934년 7월에는 윤석중 혼자서 편집을 맡았던 <어린이>가 종간호를 내었다. 8월에는 <신여성>과 <별건곤>이 종간호를 내고 사원이 흩어졌다. 개벽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차상찬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개벽>지 복간을 전부터 서둘러 왔다. 그러나 복간에 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할 수 없이 차상찬은 가회동의 자택을 은행에 잡히고 융자를 내기로 하였다.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복간호를 낸 것이 1934년 11월 1일이었다. <개벽>신간 제1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폐간된 지 8개년 만에 <개벽>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발행

인은 차상찬, 인쇄인은 박인환이었다. 편집은 차상찬과 미소 이정호가 하였고, 오래 전 <개벽>지에 관여했던 회월 박영희가 다시 와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앞쪽에 이돈화의 논설 「조선 민족의 신건설」을 신고, 신일용이 「세계적 위기와 구라파 정국」이라는 제목으로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세계정세를 분석하였다. 서춘의 「조선의 쌀 문제」, 이여성의 「필리핀 독립과 극동 정국」, 그밖에 「종교 공과론」, 「당쟁 5백년사」 등 목직한 기사를 곁들였다.

그리고 10여쪽에 문예작품을 실어 <개벽>의 옛 전통을 이었다.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김기진, 주요한, 김억, 유진오, 이태준, 이기영, 김동환, 김기림, 백신애 등이 시와 소설을 발표하였고, 박영희, 이현구, 백철이 평론을 실었다.

청오 차상찬의 복간 권두사를 읽어본다.

### △회고 8년

여러분 다같이 기뻐하여 주십시오. ... (21자 부득이 생략) 이 세상에 만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더욱이 금년 7월은 우리 개벽사가 창간된 지 14주년 돌맞이 기념이었습니다. 이 기념에 맞추어 <개벽>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은 마치 생일잔치를 하는 사람이 아들까지 낳게 된 것처럼 이중의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이란 어디까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반면에는 슬픔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새 <개벽>이 나온 기쁨이 있는 동시에 (13자 부득이 생략) 새삼스럽게 납니다. 비바람 8개성상에 세사는 격변하여 상전벽해의 감이 있고 인사 또한 무상하여 전날 <개벽>지를 위해 고심 혈투하던 민영순, 이두성, 박달성, 방정환 등 여러 용사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고, 김기전 동지가 5개성상 해서의 시골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누워 있고, 당시의 사람으로는 다만 나와 이정호 군이 남아서 본지를 편집하게 되었으니 외로운 성을 혼자 지키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오하고 결심하였습니다.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라도 본지를 위하여 분투 용전하려고. (하략)

권두언은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친 심정에서 쓴 것이었다.

복간호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발행 며칠 만에 지방에서 추후 주문이 있었지만 독자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재판을 찍지는 못하였다. 일이 잘 되나보다 하며 복간 제2호이자 송년호를 제 날짜에 내는 일에만 세 사람의 편집기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 결과 제2호가 제때에 출간되었다.

개벽사 사우제도를 확대하고 사우와 본사가 협조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규정을 정하고 제2호에 이를 사고로 발표하였다. 사우에게는 본사의 출판물이 실비로 제공되고 사원 선발에 응할 자격을 주며 사건이 있을 때는 취재와 조사를 본사에 의

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벽사를 정상화해보려는 청오의 몸부림이었다. 복간 <개벽>지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개벽 신간 기념 작품 현상 대모집 예고’ 광고를 2호에 신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복간 제3호인 1935년 신년호도 ‘신년 특대호’라는 이름을 달고 제때에 나왔다. 「1935년의 세계 전망」, 「조선 지식계급의 고민과 그 방향」, 「세계적 위기의 전면적 의의」, 「각국 경제계의 위기와 그 대책」 등 누구에게나 관심이 가는 굵직굵직한 기사와 심훈, 모운숙, 김기림, 양상은, 강경애, 엄홍섭, 박영준, 김동인, 현민, 염상섭 등 현역 작가들의 문예작품에 많은 지면을 주었다.

그런데 제3호를 마치고 나니 박영희가 구금이 되었다. 박영희는 김기진과 함께 카프에 앞장을 섰던 작가였으나 중간에 카프에 싫증을 느끼고 1933년에는 카프 즉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을 탈퇴해 버렸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 또 구금이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제3호는 제때에 나오지 못하였다. 2월호가 되어야 할 복간 4호가 3월 1일에 나왔다. 이제는 어쩔 수도 없게 되었다. 자금과 인력이 다한 것이다. 이리하여 복간 <개벽>제4호가 종간호가 되었다.

차상찬, 이정호는 텅빈 개벽사 편집실에 마주앉아 막걸리 한 되를 나누어 마시며 눈물을 뿌렸다. 편집실을 천도교에 비워주고 두 사람마저 헤어져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그 서슬 퍼렇던 개벽사의 마지막이었다.

## 12. 청오 차상찬의 저서

1934년 봄에 개벽사를 나온 차상찬은 빗더미 위에 앉게 되었다. 당장 생계가 문제였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 그 자손은 조선 땅에 살지 못하게 되고 민족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차상찬의 개벽사 15년도 남은 것이라고는 빗뿐이었다. 차상찬이 이 고난을 타개하는 방법은 글을 부지런히 쓰는 길밖에 없었다.

그의 전공이 역사, 특히 야사였으므로 그의 첫 저서는 『통속 조선 4천년 비사』가 되었다. 이 역사책은 1934년 10월에 북성당 서점에서 출판되어 복간 <개벽>에 광고를 내기도 하였는데 가격은 1원 50전이였다.

역사서에 굶주렸던 당시의 학생들에게 선풍을 일으킨 책이었다. 야사에는 정사에 감추어진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청오의 『해동염사(海東艷史)』는 역사에 나타난 여성을 역사적으로 밝혀낸 열전 형

식의 여성 인물사이다. 여성 역사서 『해동염사는』는 1937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 되었으며 책가는 1원 20전이였다.

『조선사의사』는 청오가 세상 떠난 이듬해인 1947년 5월에 청오의 부탁을 받은 이 호운이 유고를 정리하여 명성사에서 출간한 책이다.

『한국야담사화』는 청오가 세상 떠난 13년 뒤인 1959년에 동국 문화사에서 발행한 야담집으로 청오의 유고를 정리한 것이였다. 사륙판 400여 면에 「운남과 운남 왕녀」에서 「성삼문의 서병(書屏)」에 이르는 50편의 야담을 실고 있다.

『조선 100화집』은 광복 3년 전인 1942년에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재미있는 100편을 골라 엮어 조선총독부에 출판허가를 내었던 원고였다. 그러나 일제는 대동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하이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 이야기 출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출판금지’ 스탬프를 찍어 원고를 되돌려 보내었다. 이리하여 역사의 암흑기에, 역사 이야기로 선풍을 일으키려 했던 청오 차상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13. 암흑기의 활동

개벽사를 나와 글을 쓰기 시작한 청오는 조선일보의 자매지 <조광>과 <여성>에 역사 이야기를 연재하였다. 한글학회의 위촉으로 표준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경성방송국 방송위원으로 야사와 민담을 방송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야담>지에 야화를 연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1931년에 세상 떠난 소파 방정환의 유골이 홍제동 화장터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소파의 뒤를 이어 <어린이>지 편집을 맡기도 했던 최영주가 조선중앙일보 출판국에 있으면서 전날에 모시고 있던 소파의 무덤을 만들자는 운동을 폈다.

풍수학을 알고 있는 차상찬은

“내가 지관을 자청하겠소.”

하고 소파의 묘자리를 잡으러 망우리 묘지 일대를 답사하였다. 그는 소파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의 아버지 격이기 때문에 지기가 어린이 전체에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한강의 힘찬 흐름이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둘러 있으며 안산이 또렷한 자리를 잡았다. 최영주가 모은 찬조금과 지난 적 개벽사의 직원과 색동회 일동이 중심이 되어 소파의 5주기가 되는 1936년 7월 23일에 묘소가 이루어졌다. 더위가 심

한 날이었다.

만51세가 되던 1938년에 청오는 몽양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는 조선중앙일보에 『장희빈』을 연재하였다. 이야기가 한고비로 재미있는 고비에 이르렀을 때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며칠 후 올림픽 화보가 실렸는데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화보에 손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다. 이것이 이른바 ‘일장기 말살 사건’이다. 신문사는 그날자로 정간 처분이 내려졌다. 얼마 후 동아일보는 정간이 해제되면서 재기를 했으나 자금이 부족했던 조선중앙일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청오의 장희빈 연재는 중단되었다.

그러던 차 일본이 기어이 큰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대한제국, 만주, 중국을 차례로 침략하던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1941년 12월 8일이었다.

‘이제야 조선독립의 기회가 닥치는구나.’

청오는 혼자서 웃음을 참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요?”

“곧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네요.”

어느 날 청오가 최영주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였다. 최영주는 차상찬과 같이 일했던 개벽사의 일꾼이었다.

이때는 이미 미소 이정호까지 세상 떠난 뒤였다. 미소야말로 최후까지 개벽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최영주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 최영주가 눈을 감은 것은 1945년 1월 11일이었다. 해방의 날을 7개월 앞두고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최영주는 원하던 대로 부친의 묘소 아래에 묻히어 소파의 묘소와도 이웃하게 되었다

#### 14. 광복은 되었건만

1945년 8월 15일이었다. 종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었다. 곧 우리말 방송이 시작되고 일본 말은 방송에서 사라졌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복간 되고 일본글, 일본말이 신문에서 사라졌다.

‘개벽사를 일으켜야 한다!’

차상찬의 생각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돈 한 푼 지닌 것이 없는 그에게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야기할 사람은 전날의 개벽 동인 김기전 뿐이었다.

소춘 김기전은 그 동안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된 상태였다.  
“개벽사를 일으켜야지요. <개벽>을 복간합니다.”

소춘도 같은 생각이었다.

금강산에 숨어서 해방을 맞았다는 윤석중이 찾아왔다. 윤석중은 1933년에 개벽사에 입사하여 <어린이>지를 맡았던 이 잡지의 마지막 편집자였다.

“<어린이>도 다시 내어야지?”

청오가 먼저 말을 꺼내었다.

“그러지 않아도 해방 후 아동지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주간님께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24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청오의 나이는 58세였다.

그런데 어찌 뜻하였으랴. 해방의 충격이 병이 되고 말았다. 해방은 되었으나 분단된 국토, 좌우의 대립형상이 크나큰 근심으로 청오의 심종을 흔들었던 것이다.

해방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5년 10월부터 청오는 눈이 침침해졌고 언어장애로 대인 관계에 불편을 느꼈다. 곧 몸져누워 앓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해방 7개월이 되는 1946년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다.

청오의 별세를 알리는 보도가 나가자 각계의 인사들은

“한국 제일의 잡지인이 떠났구나. 펜 하나로 일제와 싸워온 그가 반쪽이나마 해방된 땅에 묻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하면서 청오의 죽음을 아쉬워하였다. 엄항섭, 김기진, 이종인, 윤석중, 이용진, 정광조, 신숙, 이단, 이돈화, 신익희, 여운형, 현상윤, 조병옥, 유억겸, 유동열, 계연집, 최동오, 김규택, 이구영 등 명사들과 천도교 내수단 대표 주옥경, 손광화 등이 조문을 하였다.

개벽사 동인의 오열 속에 청오의 유택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 송안동에 마련되었다. ㊦



「개벽」 창간 90주년 및  
청오 차상찬 선생 문화훈장수상 기념 학술강연회 <자료집>

---

발행일 : 2010. 12. 19.

발행처 : 천도교중앙총부

